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42호 (4월 4일~4월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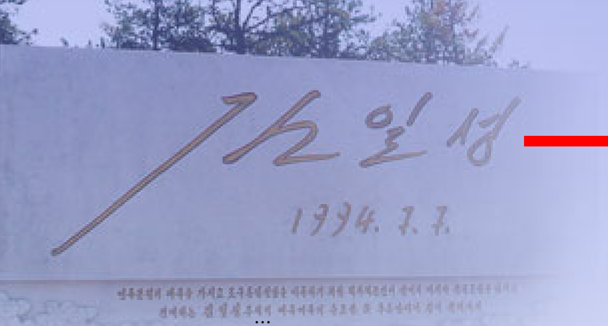
6.15WEEKLY

제42호 (4.5~4.11)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발췌)

김일성주석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

동지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입니다. 나라가 분열된 다음 오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마련되고 통일운동이 전 민족적 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 민족의 슬기와 의지를 한데 모아 조국통일의 앞길을 뚜렷이 밝힌 위대한 통일강령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조국이 통일된 다음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그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나라로 발전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만큼 그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을 뿐 아니라 주변나라들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염원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자주화의 역사적 흐름이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들고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굴함없이 벌이고 있는 자주정신과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진보적 인민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지만 통일운동은 전민족적 범위에서 날로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절박한 염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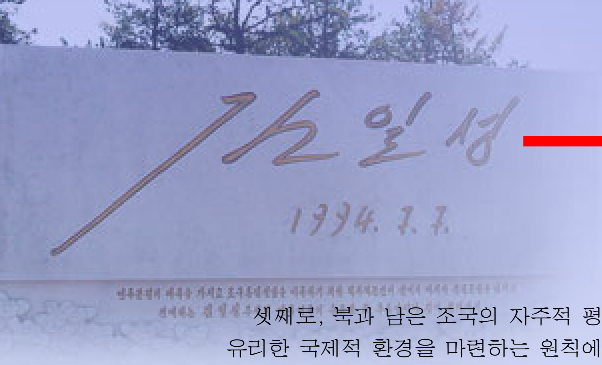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외국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하여 10만명 이하로 줄이며, 그에 따라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정한 염원으로부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도록 하며 세계적으로도 외국군대 철수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할 아무런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며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철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조선의 통일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조선 주둔 미군을 한꺼번에 완전히 철수할 수 없다면 단계별로 나누어 철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북과 남사이에 자유내왕의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 사이에 자유로운 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서로 만나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북과 남의 현실을 직접 보아야 인위적으로 갈라진 삼천리 금수강산을 하나로 통일하며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고 통일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이 북을 방문하는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할 것이며 남에서 오는 동포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남조선 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이 북으로 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숭고한 통일염원을 안고 북에 왔다간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민족적 화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 한다면 그들 자신이 쌓아놓은 콘크리트 장벽부터 허물어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접촉과 상봉위 장애로 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북과 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선문제는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분열된 것도 국제관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며 조선의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과 남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유관국가들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은 대외관계에서 언제나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며 분열의 고정화를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대결과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조선문제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조선에서 분열의 비극이 지속되어 있는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조선문제에 해결하는 데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마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다른 유관국들도 미국의 분열주의 정책에 추종하거나 말려들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본이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죄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문제에서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 야망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유엔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유엔무대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나라의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염원으로부터 통일된 하나의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간다면 국제무대에 조선의 분열을 합법화하고 조국통일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두 개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온 민족의 의사를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북남대화의 전 과정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대화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쌍방이 공동으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에만 대화에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분열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통일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하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대화가 아니라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대화 쌍방은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여야 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대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북남대화가 다시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며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잇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 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올려세우거나 사회계급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켜서는 안됩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진 각계각층 인민들의 애국지성과 공헌은 앞으로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평가될 것이며 전체 조선민족은 이름으로 평가될 것이며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융성 번영하는 새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성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1990년대를 역사적인 조국통일의 연대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애국지주 김정부 – 1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3장 백두산으로



…

우리가 김정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6년 8월말이였다. 지양개 부락에 모연공작을 나갔던 소부대 성원들이 깊은 밤중에 친일지주들이라고 하면서 칠순이 넘어보이는 노인과 그밖의 몇몇 사람들을 데려왔다.

우리는 그때 마가자라고 부르는 이도강 근처의 임산마을에서 군중사업을 하고 있었다.

억류된 사람들의 명단에서 김정부의 이름을 발견한 나는 놀랐다. 그를 ≪친일지주 라고 데려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소부대 책임자를 이동학이라고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김정부를 붙들어온 사람은 김주현이다.

나는 김주현을 불러다가 엄하게 물었다.

≪김정부를 타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저 영감은 땅만 해도 자그마치 150정보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지주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소유지가 150정보나 되는 지주라고 해서 다 타도대상으로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소?≫

≪사령관동지, 법이라니오.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런 부자 하나만 있으면 열 동네가 망하고도 남겠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그 다음 증거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주현은 김정부가 일본영사관 분관 참사원이란 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 그 참사원이 경상북도 영천인가 어디에서 이또라는 일본인 자본가를 데려다가 김정부에게 6,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알선해 주어 목재상을 하게 했다는 것, 김정부가 자동차까지 한 대 사가지고 장사질을 크게 할 수 있은 것은 다 일제놈 떨거지들을 등에 업은 덕이라는데 대하여 누누이 설명하였다.

≪다른 증거도 또 있소?≫

≪또 있지요. 증거가 한두가지 아닙니다. 김정부는 호림회장 겸 농촌조합장의 벼슬을 하면서 만주국 관청출입도 뻔질나게 한다고 합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도 제 애비의 그늘밑에서 몇해 동안 이도강 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부에게 우점은 전혀 없다던가고 묻자 김주현은 좀 얼떠름해졌다. 우점에 대한 반영은 수집하지도 않았거

니와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한 모양이였다.

≪우점이라니요. 그런 친일분자한테 우점같은 게 있을게 뭡니까.≫

소부대 책임자의 보고는 마디마디가 다 부정적이였다. 시종일관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어쩐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다. 계급투쟁과 계급성밖에 안중에 두지 않고 있던 종래의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김정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없는 그들은 우리가 장백땅으로 나오면서 중요한 통일전선사업대상으로 점찍어 놓았던 그에게 ≪친일지주≫니, ≪반동분자≫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이고 지주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까지도 붙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전선방침에도 맞지 않고 조국광복회 창립선언문이나 10대 강령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였다.

심지어 그들은 김정부의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것까지도 친일의 증거로 삼았다. 그가 전화를 놓은 것은 순수 호강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밀정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였을 것이다, 통화를 한다면 어디하고 하겠는가, 영사관이나 경찰이나 만주국 관청밖에 더 있는가, 그런놈들과 전화질을 한다는거야 고발질이나 하자는 수작이지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하고 소부대책임자는 기염을 토하였다. 사실 그 당시 개인이 집에다 전화를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평백성들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 할 호강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집에다 놓은 전화기를 친일의 표적으로 보고 이적행위의 수단으로까지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생억지가 아닌가. 만일 모든 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통일전선정책은 실천에서 엄중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었다. 이것은 김정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나는 소부대 성원들을 꾸짖기 전에 우선 마음속으로 아래 사람에 대한 교양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였다. 우리가 무송에서 장울화와 거래할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편견을 앞세우면서 우려하였다. 장울화가 보낸 여러 발구의 원호물자와 거액의 돈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산계급의 인물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장백에 나와서 150정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보게 되자 그들의 눈에서는 또다시 가시가 일어섰다.

어찌하여 장울화를 동행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김정부가 통일전선대상으로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가.

이것은 통일전선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교양사업에 빈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각계각층의 군중 속에는 실로 그 경력과 생활처지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인간들이 있다. 그 모든 인간들과의 사업에 다 들어맞는 유일한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다 참고할 수 있는 원칙만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일인가, 반일인가,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나라와 민족, 인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위해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투쟁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우리는 김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통일전선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장백에 나오면 그에게 협조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든가 밀영에 데려다가 만나려고 계획하였다.

≪내가 보건데 김정부에 대한 동무들의 평가는 도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사람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안된다. 동무들이 친일지주라고 보는 김정부는 사실 애국지주이다. 내가 그의 과거를 잘 안다. 동무들은 지양개에 나가서 한두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김정부가 여사여사하고 김하사가 여사여사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망탕 평가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속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김정부가 그렇게 나쁜 지주일 것 같으면 지양개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 마을에다 그의 송덕비를 세웠겠는가. 동무들은 지양개에 김정부의 송덕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소부대 성원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동무들이 김정부의 과거경력을 알게 되면 친일지주라고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타도대상이 아니고 포섭대상이며 반동지주가 아니고 애국지주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증한다고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모르고 김정부를 잘못 취급했습니다. 소부대의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그를 지양개에 돌려보내겠습니다.≫

김주현이 자책감에 못이겨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돌려보내지는 마시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밀영에 데리고 들어가서 품을 놓고 담화를 해보고 싶소. 동무들을 대신하여 사과는 내가 하겠소.≫

그날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김정부를 통일전선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 지주의 경력은 그날중으로 온 부대에 다 알려지게 되였다.

김정부의 출생년대는 대체로 1860년대 초라고 짐작된다. 우리가 장백지방에 나갔을 때 그는 벌써 70대에 이른 늙은이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의주군 청수동이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의주태생인 장철호는 부호라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군 운동에 투신해온 김정부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자주 말해주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는 장철호와 오동진의 청수동 시절의 죽마고우이다.

독립군이 장백땅에서 한창 기세를 올릴 때 김정부는 군비단의 남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가산을 털어 독립군에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들을 대주었다. 군세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지양개에서 농마도 내고 물방아를 놓고 쌀도 찧어 단의 식량으로 섬겼다.

김정부의 집은 길림, 무송, 임강, 팔도구, 화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이 장백으로 왕래할 때 이용한 숙박소인 동시에 회합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 연고를 보더라도 나는 김정부 노인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

김정부는 후대교육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지양개골 안에 그가 주관하는 구학서당이 생긴 것은 1920년경이였다. 자기 작인의 자식들을 다른 고장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개명시켜보려는 야심은 그로 하여금 구학서당을 신학문 위주의 4년제 소학교로 개편하게 하였고 얼마후에는 그 학교를 15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6년제 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김정부는 인접부락들에서 지양개로 찾아오는 아이들까지도 다 학교에 받아들이였다. 그 종산사립학교의 운영비와 교원들의 생활비는 작인들에게서 받은 소작료로 보장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주독립과 애국애족의 사상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양개의 소작농들은 자원적으로 소작료를 냈다. 농사작황에 따라 한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한가마니를 바치고 열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열가마니를 바치였다. 그것은 김정부가 지주로서 작인들에게 토지의 양과 질에 따르는 현물납

부량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주와 작인들 사이에는 소작계약조차 맺어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1년 소출중에서 몇프로는 농민이 먹고 몇프로는 지주에게 바친다는 약속이 없었다.

한때 지양개에서 김정부의 소작농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항일혁명투사 이치호는 세상에 김정부와 같이 선량하고 통이 큰 지주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지주의 땅을 부치면서도 소작료가 얼마인지를 몰랐다, 장리쌀을 여러번 가져다 먹으면서도 이자를 붙여 돌려준 일이 없다, 그래도 김정부는 추궁하지 않고 매사를 작인들의 자원성에 맡기였다, 인민들이 그의 집앞에 송덕비를 세운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지양개 등판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그것은 사실 벌방에 있는 15정보의 옥답보다 별로 나은 것이 못되었다고 말하였다.

지양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바이≫, ≪우리 부장님≫, ≪우리 교주어른≫하면서 김정부를 찬양하였다. 그것은 실로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웃의 지주들은 김정부의 덕행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작인들이 지양개를 넘겨다보며 김정부의 소작농을 부러워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맺지 않고 소작료를 내키는대로 납부하게 하는건 지나친 선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는 살림살이가 3~4년 안팎에 거덜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부를 설유하였다.

이웃의 지주들이 이따금씩 그런 걱정을 해도 김정부는 꿈만해하였다. 소작계약이 없다고 우리 세식구가 굶어죽기야 하겠는가. 작인들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고 작인들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것이니 그런 이치를 생각해서 인정을 퓸앗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김정부가 이런 선덕을 지닌 부호였기 때문에 만주국 관청이나 일본영사관에서도 그를 감히 허술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소부대성원들이 데리고 온 지주들 가운데는 김하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애국적인 지주였다. 그에게 김하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구한국의 신식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본명은 김정칠이었다.

김하사는 10대의 나이에 이조군대에 탄원하여 일찍부터 군인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한때는 우리 나라 첫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참군하였으며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에 열렬히 공명하기도 하였다.

농촌초부와 같이 소박하고 정결한 그의 모습에는 강건한 정치적 신념이 비껴있었다. 갑오개혁때 왕궁호위를 전문으로 하는 시위연대에 있던 그는 그 후 진위대로 옮겨갔으며 망국 이후에는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가 의병운동이 조락하자 생업에 파묻히었다.

김하사는 구한국말기 신식군대가 존재한 거의 전기간을 하루와 같이 근실하게 복무한 군인으로서 이조군대의 사멸과정과 근대조선이 겪어온 파란만장의 국난을 고스란히 체험한 역사의 산 증견자였다. 김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오랜 기간을 만근하면서도 하사관 이상의 직급에 등용되지 못한 것은 북관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하사는 이조의 위정자들이 정배지라고 차별시하는 갑산출신이었다. 봉건조정이 군정개혁도 표방하고 문벌폐지도 부르짖었으나 서북관 사람들을 인재등용에서 제외하던 구시대의 유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하사는 10정보의 땅과 여러마리의 부림소를 가지고 있는 지주였으나 사고와 행동에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애국자였다.

그런데 그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김정부나 김하사같은 사람들도 통일전선대상이 된다고 하면 입을 딱 벌이면서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포섭대상이라니, 이건 ≪계급협조≫가 아닌가고 하면서 얼떨떨해하였다.

사실 맑스나 레닌의 명제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침으로 통하던 반세기전만 해도 우리가 모모한 지주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로부터의 탈선이라고 시비하였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자본가를 동맹자로 만들려고 하면 레닌주의에 대한 이단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우리 혁명의 산 현실을 떠나서 맑스-레닌주의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고 교조적으로 대한 후과였다.

해방 전 조선농촌에서의 계급분화와 토지소유관계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통계자료들을 보면 일본인 대지주의 대열이 늘어날 때 조선인 대지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중지주나 소지주로 영세화되었거나 몰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총독정치의 지반을 다지었다. 그 과정에 일부 토착지주들은 총독부의 지지밑에서 토지와 자본을 늘리며 공상업에 돈을 투하하는 대지주로 되고 매판자본가로까지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선인 대지주들은 중소지주로 남아있었다.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그 처지가 영락된 일부 중소지주들이 소극적이나마 반일애국을 지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주, 자본가들 중에는 항일혁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들도 있고 해방이 되자마자 땅과 공장을 송두리째 나라에 바치고 평범한 근로자가 되어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 개인의 치부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양심적인 자산가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시책에 반기를 들 정치적 이유도 없고 그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방해하여 나설 아무런 감정심리적 기초도 없다.

물론 나도 어린 시절에는 지주, 자본가라면 모두 놀고먹는 기생충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자산가들 속에도 양심적인 자산가가 없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을 애국적인 자산가와 반동적인 자산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창덕학교 시절에 백선행이 학교에 많은 땅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장울화와의 인연은 나로 하여금 자산가 일반을 다 타도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나는 진한장을 통해서도 부자들에 대한 관점을 더욱 똑똑하게 정립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런 애국적인 사람들을 자산가라고 하여 타도하거나 따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혁명의 지지자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되며 애국적인 자산가는 물론, 수많은 군중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중은 그런 인정사정없는 혁명을 외면할 것이다. 기뻐할 것은 오직 적들뿐이다. 계급투쟁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탈선은 결국 원쑤들의 전략에 발을 맞추는 최대의 이적행위로 된다.

…

민족대단합의 불멸의 총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발표 4돌

조연택 / 구국전선 제474호 주체91, 4월 11일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시하신 역사적인 4.18저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발표 4돌을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18일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 5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었다.

영도자님의 저작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역사적 문헌이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제기되는 제반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민족대단결 총서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저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 가장 폭넓은 민족대단합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었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주석님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었으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활력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시었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저작에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역사적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시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할데 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이념, 그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도들을 완벽하게 밝히고 있는 민족적 단합의 대정치강령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대단결위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역사적 이정표로 된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거기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으로 보나, 현실적인 실천방도로 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민족대단결강령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결국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애국애족은 민족대단결의 사상정신적 기초이고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 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며 더욱이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선다. 우리 민족의 이런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민족대단결의 튼튼한 사상적 기초로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선결적



요구이다.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민족적 단합을 이룰 수 없고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동포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칠 수 있다.

참으로 **김정일**영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현시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주는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밝혀주신 것은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그분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과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국통일위업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불멸의 민족사적 공적으로 된다.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영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생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의 광복을 안겨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고, 한세대에 미, 일 제국주의를 타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략전술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심점이시며, 전 민족이 일치하여 경모하기에 다함없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자주의 새로운 시대를 지도하는 인간해방의 구성이시었다.

비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곁은 떠나시었어도 수령님이 남기신 불멸의 혁명전통과 위대한 업적은 북조선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게 하는 초석이며, 한국민중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 시대의 향도이념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은 꺼지지 않는 횃불로 날이 가면 갈수록 위력이 더해질 것이다.

1. 김일성장군님은 1912년 4월 15일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여사 사이에서 탄생하시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당시의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의 빈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일성**장군님은 한편으로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약탈이 날로 강화되고 다른편으로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에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가정은 위대한 혁명적 가정이었다.

장군님의 일가는 대대로 열렬한 애국자들이었고 부모님들은 모두 혁명적인 반일투사이었다. 아버지인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운 혁명투사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었다.

어머니인 강반석여사는 한평생을 조선혁명의 승리와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불요불굴의 투사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었다.

이러한 혁명가정에서 일찍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조국과 용감하고 슬기로운 조선민족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사와 우리 나라 애국명장들, 레닌과 사회주의 10월혁명에 대하여, 조국강토를 짓밟고 있는 일제침략자들의 가혹한 탄압과 민족적 멸시, 지주, 자본가들의 악독한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끊임없는 교양을 받으면서 어릴때부터 탁월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2.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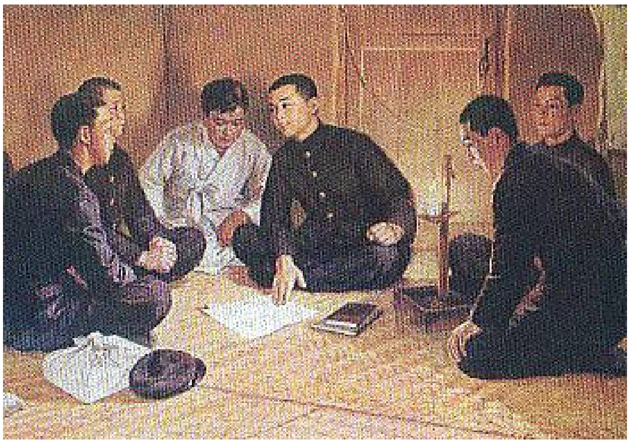
1923년 팔도구 소학교를 졸업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은 앞으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가있으면서 우리의 글을 배우며 조국의 현실도 연구하고 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체험해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열두살의 어리신 나이에 홀로 천리길을 떠나 만경대로 나오시게 되었다. 그날은 설한풍 휘몰아치고 음력 정월 그믐날이었다. 온 강산이 얼어붙은 천리가 넘는 먼길을 **김일성**장군님은 홀몸으로 떠나 만경대까지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에 나오시여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2년후에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을 가슴에 품으시고 팔도구를 향하여 길을 떠나 십여일만에 후창군 포평에 이르시였다.

이곳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으로 건너가는 동포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조국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시었으며 기어코 원수를 갚고 나라를 다시 찾고야 말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었다.

3.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적 제한성과 취약성으로 인한 독립운동자들의 수공업적이며 비조직적인 낡은 활동방식으로는 도저히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전에 있는 아버님의 친우의 집에서 맑스-레닌주의 서적들을 구해 읽으시면서부터 더욱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시게 되었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과학적인 공산주의를 깊이 연구하시였을 뿐만 아니라 화성의숙 안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에게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를 꾸준히 해설선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진 선진적인 학생들을 망라시켜 진정한 비합법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이때부터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이께서는 혁명적 청년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 이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역사의 첫출발이였다. 실로 ≪ㅌ.ㄷ≫의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종파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참신한 발전을 약속하는 시발점이었으며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무대에 등장함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변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여름에 ≪ㅌ.ㄷ≫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여기에 보다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묶어 세우시였다.

4.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제시하신 ≪카륜회의≫는 우리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일대 전환의 새 시대에 들어서게 한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실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일대시련을 겪고 있었으며 그 전도는 극히 암담하였다.

조선의 인민들과 노동계급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탁월한 영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우리나라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단계에 있어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며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과업이라는 것을 밝히시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의 성격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 목적 그리고 당면한 투쟁과업은 암담한 처지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 주는 등대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한 조선혁명의 반제반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건민주주의적 성격을 규정하신 후 항일무장투쟁노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창건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 준비를 위한 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이를 동시에 추진시킴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강력한 혁명역량을 편성하여 조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비로소 조선혁명은 자기의 명확한 지도사상과 지도이론을 가지고 올바른 궤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정확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이 없었던 탓으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였던 조선혁명을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5.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절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었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근 40년에 걸친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

일제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전적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영도에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시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매 발전단계마다 주체적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시여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반제역량을 일제격멸에 조직동원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시었으며 부대내의 혁명적 규율과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계가 튼튼히 이루어지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강화됨으로써 적들의 대규모적인 포위공격과 악랄한 봉쇄정책도 모조리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우리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6.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 것도 아닙니다. 36년 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에서 갓 벗어난 우리나라에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알맞는 새 형의 민주주의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영도하심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 엎고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 후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민주역량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우시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심으로써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인민정권은 북조선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로 넘어갈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북조선의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확증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인민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감으로써 오늘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북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이 실시되었으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근로인민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철저히 수행된 결과 사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제도,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없어졌다.

인민경제에서 국영경제와 협동경리로써 구성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개인농경지와 도시수공업경리로 구성된 소상품경제형태와 도시의 자본주의적 개인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에 국한된 얼마 안되는 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의 계급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노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북조선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혁명적 민주기지가 창설되었다.

민주개혁은 북조선 민중들의 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남한 민중들에게 큰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북반부에서 완전히 수행되고 공화국 북반부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로부터 새로운 인민민주주의로 전변되었으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

7.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주체형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동계급의 당 창건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축성하시고 당을 창건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꾸리심으로써 당 창건의 역사적 뿌리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조선노동당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노동당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역사적 뿌리에서 솟아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노동당이 빛나는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로 되는 것은 첫째로 조선노동당이 수령님의 영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 부대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조선노동당이 수령님의 영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었기 때문이며 셋째로 조선노동당이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

조선노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여 왔다. 조선노동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고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로 창설하여 왔다.

당은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영도하였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여 이 땅위에 역사상 처음으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조선노동당은 일관되게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 밑에 북조선은 완전한 정치적 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불패의 사회주의 나라로 되었다.

조선노동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가면서 관철하여 나아가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당,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주체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8. 위대한 수령님은 한세대에 미, 일 제국주의를 타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략전술가이시다.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반제반미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전쟁은 동시에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보위하며 세계혁명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전체 민중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조선민중의 주체적 역량은 급속히 강화되고 전체 조선민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였다.

한 세대에 막강한 두 제국주의를 맞이하여 결코 굴함없이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항상 승리의 길로 조선을 이끄시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9. 우리 공화국은 창건이래 승리와 영광의 한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 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활짝 꽃펴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 날로 더욱 융성번영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식민지적 수탈과 침략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진정으로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인류의 이상사회를 이루었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이 모든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인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전체 조선을 주체사상화하고 수령 당 인민대중의 유일사상체계를 굳건히 세운 북조선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제국주의들의 침략행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위력한 현시대의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성지로 되고 있다.

동구유럽 등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이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시련이 있을 때도 현명한 수령님의 영도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든 북조선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날로 발전강화되었으며 오히려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셔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지와 사상을 심장에 새겨 불패의 통일단결을 과시하고 있는 북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의 위력으로 그 어떤 제국주의들의 침략행위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휘황한 등대로 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조선민중의 심장에 고동치는 한 조선민중의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

1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은 조국이 분단된 직후로부터 시종일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입장을 천명하시었으며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민족이 통일단결하여 남조선에서의 망국단선을 분쇄하고 통일적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데 대한 과업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남북조선대표들의 흥분과 감격을 자아냈으며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은 여운형, 김구와 같은 민주와 통일인사를 백주에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으며 마침내는 망국적인 단선으로 조국을 두동강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는 북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통하여 전체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화하려고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장군께서는 조국의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하시여 매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을 충심으로 천명하시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냉랭한 반목질시와 대결긴장이었다.

그러나 전체 조선민족의 생존과 융성번영의 길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있다고 확신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정세도 극복하시면서 통일의 험로를 개척하시였다.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남북이 합의하는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정희 역적은 ≪유신≫의 반통일적 독재의 칼바람으로 답하였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도로 흐려지고 말았다.

하루빨리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체조선민중의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5대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또한 1980년 미국의 ≪두개조선≫정책에 영구분열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일한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내외에 천명하시였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2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천명하시여 근 반세기에 걸친 분단과 대결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의지를 체현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에게 모든 장애와 난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역사적 위업은 기어코 우리대에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높이 받들고 민족대단결에 기초하여 반드시 우리대에 우리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1
한평생 인민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 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2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금수산기념궁전



이 궁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성지이다.

궁전 실내에는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이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이 있다.그리고 조선인민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 나날들을 돌이켜 보게 하는 울음홀, 주석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에 리용하신 렬차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승용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여 받으신 훈장과 메달 등이 있다.

궁전 외부정면에는 주석의 태양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궁전 광장, 외랑, 수목원 등이 특색 있게 꾸려져 있다.

지난 해에는 70여톤짜리 화강석통돌 100여개를 가공하여 울타리와 대문을 세웠다.

학을 량면으로 특색 있게 형상한 울타리와 금빛으로 빛나는 대원수별, 별을 받들어 올린 목란꽃과 진달래꽃 부각장식들, 그 굽도리를 감싸며 장식된 대원수견장 월계수 등으로 장식된 돌대문은 주체의 최고성지의 전반적 품격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되였다.

이 궁전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꾸려 졌다.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은 인민의 기념궁전이 되여야 수령님께서 영원한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궁전 외랑건설이 끝났을 때에는 몸소 수평승강기를 타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눈비를 맞지 않고 더위도 모르고 궁전 경치를 보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였다고 만족해 하시였다.

주체85(1996)년 7월 초에는 일군들에게 기념궁전을 누구나 다 와볼수 있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국가적인 명절을 비롯하여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붉게 타는 계절에 궁전 광장을 개방하여 사람들이 와서 기념사진도 찍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해 7월 27일부터 궁전 광장이 개방되여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오고 있다.

김일성화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의 식물학자인 분트가 오랜기간의 연구끝에 주체53(1964)년에 만들어 낸 꽃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칭송하여 주체54(1965)년 4월에 이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였다.

지금까지 이 꽃은 조선의 각지와 중국, 일본, 벌가리아, 기네, 잠비아, 꼴롬비아 등 세계 수십여개 나라들에 널리 퍼져 재배되고 있다.

김일성화는 란초과 식물의 한 품종이다.

줄기는 곧추 서있는데 그 높이는 30～70센치메터이며 잎새는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진분홍보라색의 꽃송이가 약 100일동안 련속 피여 나는데 꽃직경은 7～8센치메터이다.

란초과에 속하는 꽃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꽃잎에 3개의 흰 점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것이다.

번식은 포기가르기, 싹떼여심기, 조직배양 등으로 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김일성**화재배기술≫을 비롯하여 이 꽃의 재배보급에 필요한 참고도서들이 출판되였으며 **김일성**화와 관련한 많은 시가 작품들이 창작보급되였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김정일장군님 말씀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조국을 광복하여 주신 해방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구원하여 주신 은인이시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해방후 그것을 계승하여 인민정권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동서고금의 력사를 펼쳐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과 괴로움을 다 체험하시고 혁명의 길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헤치시며 한평생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 오신분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5일~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북 땅위에 처음으로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건국이래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민중으로 되게 하여 주신 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주석님께서는 일찌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셨으며 이북 땅위에 민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참다운 사회주의,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석님께서 민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오늘 이북 민중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민중으로 되었으며 단군이래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고 있습니다.

이북의 현실은 한민족의 위대성은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영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데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영도를 받을 때만이 빛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시조로 높이 우러러 모심으로써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닐 수 있었고 오늘은 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상을 만방에 자랑떨치며 후손만대의 창창한 내일을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되였습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같으신 절세의 위인을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시조로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이 땅위에도 하루빨리 착취와 압박이 없고 외세가 없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불후의 고전적 주요노작 목차

≪조선혁명의 진로≫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한 보고 / 1930년 6월 30일
≪좌경적 모험주의노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노선을 관철하자≫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 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1년 5월 20일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하여≫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 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1년 12월 16일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에서 한 연설 / 1933년 3월 11일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
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 1933년 3월 27일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소책자로 발표한 논문 / 1933년 5월 10일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진출하는 데 대하여≫
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5년 3월 27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보고 / 1936년 2월 27일
≪조국광복회 10대강령≫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1936년 5월 5일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무송현 서강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7년 3월 29일
≪포 고≫
1937년 6월 1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자≫
보천보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 / 1937년 6월 4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에 발표한 논문 / 1937년 11월 10일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연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
북대정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9년 4월 3일
≪조국땅에 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자≫
무산지구 베개봉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회의에서 한 연설 / 1939년 5월 20일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무산지구 신사동 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 / 1939년 5월 22일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데 대하여≫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보고 / 1940년 8월 10일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 1943년 9월 15일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 1945년 8월 20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 1945년 10월 3일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한 보고 / 1945년 10월 10일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각 도당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1945년 10월 13일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 1945년 12월 17일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결론 / 1945년 12월 18일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민주청년 열성자대회에서 한 결론 / 1945년 19월 29일

≪새 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한돐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 1947년 10월 1일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 / 1951년 6월 30일

≪모든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1955년 4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 1955년 12월 28일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의에서 한 연설 / 1958년 11월 20일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 1959년 2월 26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1964년 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년 4월 14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1967년 5월 25일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 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 1968년 3월 14일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1969년 3월 1일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1970년 2월 17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과 한 담화 / 1970년 12월 3일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중 일부 / 1972년 9월 17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1990년 5월 24일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 주석의 대답≫

1991년 6월 4일

≪청년들은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제 8차 대회에 보내신 서한 / 1993년 2월 22일

주체사상은 투쟁속에서 창시된 독창적인 사상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5일, 7일



주체사상은 오늘 만인의 심장을 거머잡은 위대한 철학사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미래, 인류의 영원한 앞날을 밝히는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건 그분의 공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게 된 경위 가운데서의 일부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는 투쟁속에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관해서 얘길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 함께 했거든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김현규 : 주체사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창시과정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주체사상의 창시과정의 주되는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변혁운동의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고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창시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자 : 당시 강도일제의 침략으로해서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민족의 해방과 민중의 자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변혁투쟁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더욱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셨을 때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해서 거듭되는 곡절과 실패를 겪으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건적 고리는 조선혁명을 조선혁명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기식으로 개척해나가는가 아니면 선행세대운동에서처럼 계속 사대와 교조에 매달려 큰 나라에 의존하는 길로 나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변혁운동을 자기 식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이 전도가 있고 승산이 있는 길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가는 건 전도가 없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선행세대운동의 심각한 교훈으로 보나 주변나라 변혁운동의 형편으로 보나 명백한 사실이였습니다.
사회자 : 당시 조선혁명의 자주적인 길을 개척하는데는 큰 걸림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주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셨을 때에 걸림돌은 크게 두 측면에서 추측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적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남의 나라 땅에서 독수공권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는데 준비된 주체적 역량도, 변혁의 지도사상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였고 또 우리 나라와 같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지침으로 삼을만한 이론이라든가 경험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때 기성의 이론과 공식, 큰 나라 당의 경험에 대한 사대주의적이며 또 교조주의적인 관점은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분자들속에서 하나의 유행병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석님께서는 자주적인 혁명의 길을 선택하시던 그때를 감회깊게 회고하시는 기회에 자신께서는 그때 민족주의운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실패를 분석해보시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똑똑히 말씀해주셨다고 합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결국 주석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남의 나라의 힘에 의거해 남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체적 혁명역량에 의거해서 벌여야 한다는 신념과 주관에 따라 자주적인 길을 걸으셨다, 이 말씀인데요. 주석님께서는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구사조의 낡은 길을 전면 배격하시고 자주와 창조*** 새로운 **에서 주체적인 혁명의 길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개척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자주적인 변혁운동의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일찍부터 이민위천의 사상과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신 주석님께서는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정신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기 때문에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의 허황한 주장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고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셨습니다.

사회자 : 그것만이 아니죠. 이른바 공산주의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국제당이나 큰 나라에 기대어 무원칙하게 맹종맹동하고 큰 나라에 더불어 나라의 독립을 해야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에도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걸 단호히 반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은 자주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새로운 변혁운동의 승리를 ****추진시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혁명역량을 자체로 꾸려 나가셨는데요. 그 시기 주석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해서 반제청년동맹, 공청 등을 결성하신데 기초해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운동을 **하시고 그 대열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사회자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는 투쟁의 앞길을 밝혀줄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기 위한 사상이론활동과정에도 그대로 구현되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 시기에 착상하시고 형식화시켜 나가신 주체사상의 원리와 내용들에는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데 관한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체현되고 관통되어 있는 겁니다. 하기에 일찍이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주석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견지하신 주체식 혁명방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식으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나가시는데서 또한 기성이론이나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조선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체의 실정에 걸맞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나가는 폭넓은 길을 걸으시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일찍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시고 진리의 기준을 기성의 이론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서 찾으셨는데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해나가시는 첫 시기부터 선행한 변혁이론에 대한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준열히 반대하시고 그걸 창조적으로 대하시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석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시기 위한 사색과 활동의 전 과정에서 일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역사적 조건에서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혁명의 주체적 임무와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셨으며 조선혁명의 이익에 맞고 우리나라 실정에 걸맞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다해도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해 나가셨습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고전의 모든 원리와 명제들이 절대시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노선으로 되고 있던 환경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시고 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하나하나 정립하셨는데요. 그건 결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당시 주석님께서 규정하신 조선혁명의 성격문제, 반일통일전선문제는 민족해방의 과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운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써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여건에서 조선혁명의 성격문제와 통일전선문제를 노선으로 제기하면 그건 틀림없이 국제당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주석님께서와 같이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의 원리와 내용들은 독자성, 자력갱생의 정신과 함께 참신하고도 대담한 창조적인 정신과 생기있고 활력있는 창조적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복잡한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가시는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정신, 기성이론에 대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걸 민중의 이익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실천에 걸맞게 풀어나가시는 창조정신과 창조적 입장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심으로써 현실에 구현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창시과정의 또다른 하나의 독자성이 있다고 하겠죠.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심화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사상의 그 창시과정부터 독창적인 사상이라는 걸 올바로 인식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겨레와 인류를 위한 가장 올바른 지도이념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 금할 수 없네요. 그래서 4월을 맞은 세인들의 마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로 쏠리고 있나봐요.



자주시대의 빛발 주체사상

≪자주학회≫ 이봉학 / 구국전선 제474호 주체91, 4월 11일

해마다 4월이 오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고 주석님을 추억할 때마다 그분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민중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불멸의 역사적 공적부터 떠올리게 된다.

주체사상은 주석님께서 우리 민족과 행성의 전인류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이며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만년재보이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적

주체사상은 인류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혔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천년동안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의 발견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

원래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사람이 생겨나고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랜 세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 힘을 믿지 못했던 탓에 압제자들의 천대와 멸시, 착취와 억압을 숙명으로 감수하며 역사의 뒤안길에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주체사상의 조명을 받고 주체의 진리를 터득한 그때로부터 인류는 비로소 인간은 팔자에 포로된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 개척자임을 자각하고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수천년 자기를 모르고 살아오던 인간의 비극사에 종지부가 찍히고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의 권능을 찾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창시와 더불어 시작된 이 역사의 새 시대를 사람들은 주체시대, 자주시대라고 부른다. 주체시대, 자주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세계 수억만 피압박민중이 시대의 중심에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영광찬 시대이다.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주체시대, 자주시대는 21세기에로 이어져 주체사상의 향도아래 인류역사를 더욱 찬란한 인간만세의 역사로 수놓아가고 있다.

인간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주체사상의 공적을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을 자기 운명의 주인, 개척자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높이 내세워준 주체사상에 의해 사람이 자주적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새겨봐도 주체사상이 이룩한 역사적 공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주체사상의 무궁한 활력

주체사상의 위대성, 그 무궁한 활력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가 모두 이 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를 편견없이 살펴보자. 그러면 주체사상이 날이 갈수록 세계적 판도로 더욱 급속히 보급, 전파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을 못본척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 60년대 초부터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70년대에는 벌써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1978년 4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는데까지 이르렀다.

인도의 뉴델리와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프랑스의 파리에는 대륙별 또는 지역별 주체사상연구소와 학회가 설립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 결성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수가 1천여개에 달한다고 전해진지도 근 10년이 된다. 올들어만도 이탈리아에서 로마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 것을 비롯하여 기니, 키르키즈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새로 출범하였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제국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이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을 향도적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이 세계를 풍미하며 역사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웅변이며 시대의 증언이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고 사상의 위대성은 그 변혁적 역할을 통해 과시된다.

주체사상에 접하는 것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이 사회각계에로 급속히 파급되어 폭넓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신봉자대열은 날로 늘어나 하나의 위력한 사회정치세력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는 각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대토론회≫가 공개리에 개최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

격을 주었다. 대학생들은 주체사상탑모형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주체의 진리에 충실할 것을 맹약하는 모임까지 가졌다.

1980년대 중반이후 주체사상파문이 대학가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각계에로 확산될 때 정부당국은 ≪수개 사단의 주사파세력이 사회각층에 뿌리박았다≫고 아우성친 바 있다. 오늘 그 세력은 백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사상이 보급,전파되는 경로를 보면 먼저 선각자들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그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쳐 대중 속으로 파급되게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만으로 되는 끊임없는 증식과정인 것이다.

지금 한국민의 의식 속에서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숭미, 공미의 사대굴종사상이 불식되고 민족주체의식, 자주정신이 함양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불신의 반미풍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주체사상에서 빛과 자양을 받아 뿌리내리고 자라난 결과에 이루어진 한국민의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부시의 이른바 ≪악의 축≫발언이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얼마나 증폭시켰는가.

나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여 대중적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가열차게 전개된 것도 인간의 사상정신생활과 사회변혁운동에 미치는 주체사상의 거대한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주체사상과 민족의 지위

위인의 높이는 무엇보다도 사상의 높이다.

예로부터 ≪정신이 위대해야 영웅≫이라고 하였다. 사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며 그분께서 이루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에게 영원한 향도이념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주체사상을 주석님의 비범한 예지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천만지당한 평이다.

비범한 예지는 위인만이 지닐 수 있는 특출한 천품이다. 위인은 예지로 앞길을 밝히고 신생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예지와 지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승리를 이룩해 나간다. 그래서 예지를 위인의 등불이라 하는 것이다.

주석님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천출위인이시다. 주석님의 이 특출한 천품을 떠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의 창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주체사상창시의 비결을 이 하나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그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주석님께서 민중 속에서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셨다는 점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민중을 몽매하고 우매한 계몽대상으로만 보던 기성운동자들과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도,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도 민중이라는 주체적 관점을 지니시고 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독창적인 길을 걸으시었으며 그 과정에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을 위해 헌신해 오신 주석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중애에서 싹트고 자라나 알찬 열매를 맺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이념이며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이념이다. 주체사상의 근저에 깔려 있고 그 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이 바로 만인을 매혹시키고 공감시키는 사상적 향기로, 만민을 끌어당기고 결집시키는 사상적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석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민중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이 세계만민이 신봉하고 실천에 구현해 나가는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시대사상으로 되게 된 것은 이 위대한 사상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공동의 지향과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넋이고 빛이며 힘이다. 주석님의 주체사상이 인류공동의 넋으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자주시대의 횃불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상승궤도로 견인해 가는 역사의 기관차로 공인되고 시대를 대표하고 이끄는 지도사상으로 부상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지위는 일약 시대의 첨단에서 역사를 자주의 궤도로 선도하는 영광된 민족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가 사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민족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지도사상의 위대성에 의해 규정된다. 지난날 자기의 사상, 철학이 없어 외래사상에서 갈길을 찾아 헤매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러던 이 민족이 만고절세의 위인을 모셔 시대사상을 창시하고 역사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니 자랑이면 이보다 더 큰 자랑,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데 있으랴.

오늘 주체사상의 보물고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인류의 영원한 향도이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어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시대의 영원한 빛발, 불멸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주석님과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신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새길수록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반드시 승리에로 종착시켜야 할 사명감을 더욱 자각하게 되는 마음이다.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으시고

박소영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태양절특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염원이였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주석님이시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주석님의 한평생은 항일투쟁시기를 내놓으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바쳐진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간고한 항일투쟁을 승리에로 영도하시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지만 미제의 이남강점으로 하여 이남민중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두고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마음 편안한 적이 없으신 주석님이시였다.

언제인가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의 근심걱정은 오직 하나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할 생각 뿐이라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분께서는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회의 석상에서도, 이른 아침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건설장의 밤길을 걸으시는 그 바쁘신 현지지도의 나날에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생각하시지 않은 때가 없으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잇닿아 있었다. 그분께서는 매 시기마다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영도력으로 통일운동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시면서 민족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석님께서는 8.15후 미제와 리승만일파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위험이 닥쳐왔을 때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남과 북의 애국역량의 단합을 실현하심으로써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민족자주의 통일노선을 견지하여 오신 주석님께서는 1970년대에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어 통일조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어 역사적인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케 하는 사변을 안아오시기도 하시었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이 위대한 기치가 있기에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확신성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온 겨레를 굳게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었다. 정녕 우주와 같은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주석님의 품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길로 나서게 한 위대한 태양의 품이였으며 민족사의 곡절로 하여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을 애국애족의 길로 이끌어준 은혜로운 어버이품이였다.

하기에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 지난날 반공을 일삼던 사람들까지 위대한 주석님의 품을 찾아 이북으로 들어갔으며 인생전환을 한 이남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을 바쳐 왔던 것이다

주석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에 마지막으로 봐주시고 친필을 남기신 문서도 통일관계문서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주석님과 똑 같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승계되고 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있기에 주석님의 통일염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민족대단결과 인간성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일～2일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한평생이 집대성되어 있는 불멸의 태양전서 세기와 더불어 . 청사에 기리 빛날 위대한 사상과 업적, 고매한 풍모와 귀중한 경험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는 주석님의 회고록은 인생의 참된 교범입니다.

주석님의 영웅서사시적 생애에서 삶과 투쟁의 진리를 터득하는 시간 회고록을 펼치며 , 오늘은 민족대단결과 인간성 이런 제목으로 유진명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멸의 노고를 바치신 어버이주석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민족성원 한사람한사람을 따뜻이 손잡아 조국통일의 길에 내세워주셨어요.

어버이주석님께서 통일애국인사로 내세워주신 백범 김구선생이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사람들중에 한사람이죠.

광복후 많은 사람들은 김구를 이승만과 같은 인간으로 보면서 경멸시했죠. 그가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한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해도 김구를 올바른 길로 돌려세울 수 있다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주체37 (1948)년 4월에 있은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해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뵙고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의 인생전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서 그가 이런 인생전환을 할 수 있은 것은 북의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그가 일생을 바친 애국애족의 정신이 고도로 각성되고 그의 인간성이 최대한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존재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착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은 경멸하는 법입니다. 이 고유한 본성이 바로 인간성이예요.

주석님께서는 아무리 지주, 자본가계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성이 있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향기가 있으면 민족단합의 길에 설 수 있는 기초로 된다고 하시면서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하게 묶어세울수 있다고 보신 것은 바로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 애국애족과 인간성에 대한 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를 겨누던 최덕신과도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의 이남 집권자들과도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남의 집권자들과 함께 대화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협상탁에 마주 앉는 것은 비록 제한성은 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양심과 인간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며 그 양자가 어느때든지 민족화합의 대화원에서 꽃으로 만발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회고록에 쓰셨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남과 북, 해외 7천만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사상과 업적, 경험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며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애국적 숭배심에 가슴 젖어드는 불멸의 위인전서 세기와 더불어 . 청년학생 여러분은 위대한 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자주, 민주, 통일성업에서 청춘을 빛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국하는 김구



김일성주석님과 조국통일3대원칙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일~2일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시켜 민족의 소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격동적인 시기를 맞아 우리 겨레는 일찍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주체61 (1972)년 5월 3일 이날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정립하시어 온 세상에 천명하신 역사에 불멸할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북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을 몸소 만나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이후락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남 당국이 남과 북 사이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고 대표를 파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이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말하면 이남 집권자의 오른팔로, 제2인자로 자처하면서 사대매국과 반공, 반통일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해서 우리 겨레와 이남 민중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해같은 아량과 포옹력으로 그를 따뜻이 만나주셨습니다. 지난날 그가 저지른 죄행을 불문에 부치시고 늦게나마 통일대화에 나선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정은 일찍이 한평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와 같은 사람들도 큰 품에 안아 연공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날 이후락에게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열강들의 농락물로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일치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쌍방이 합의해서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남과 북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계속하시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후락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자세로 경애하는 주석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를 자리에 앉히시고 계속 하시어 일찍부터 구상해오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짚아가시며 그 본질적 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말씀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물론 민족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민족적 양심을 지녔다면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더없이 정당하고 애국애족에 넘친 말씀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안은 이후락은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당국자도 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후락과 역사적인 담화를 마치시면서 이번에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통일강령으로 되는 만큼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 온 겨레와 세계 민중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석님께서는 방북한 그의 소행을 다시한번 평가하시고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지 매국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사람이란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해야 영예스럽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 이후락은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남 당국자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좋다며 접수하고서도 그것의 공표를 폐지하는 배신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공표되면 우리 각계 애국민중들속에서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또한 야당들도 이북과의 접촉과 협상을 주장해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저들의 분열주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타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또한 이남 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의 성격을 항시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아니라 별개의 합의문건으로 만들어보려고 꾀했을 뿐 아니라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치않게 저들의 이른바 분열주의적인 관계론을 조문화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82년 6월 어느날 조국통일관계일군을 부르시어 이남 당국자들의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예리하게 해부해주시면서 공동성명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



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자상히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보도방법과 방향에 관해서까지 자상히 밝혀주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동성명문은 7월 4일 10시에 방송으로 내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시점에 방송예고를 해야한다는 것까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체61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골자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식 발표됐던 겁니다.

역사적인 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민족을 격동시켰고 삼천리 온 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들끓게 했습니다. 온 겨레는 당장 분열의 철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경탄과 흥분속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서울의 한 방송은 그날의 감격을 일제통치하에서 광복되던 지난 8.15의 감격을 재현하는 듯 했다고 전했고 여러 신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7.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보고라고 특별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도 7.4공동성명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신 숭고한 염원과 불면불휴의 노고의 결실이며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던 겁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골자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바로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어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바쳐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크나큰 노고와 심혈의 결정체였고 그 정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대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성업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의 통일친필비

박남순 / 구국전선 주체 89년 7월 1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면서도 7천만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과 의지가 합류되는 곳이다.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판문점 북측지역에 모여 성대한 통일대축제를 벌이며 남과 북, 해외의 3자가 연대연합하여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룰 방도도 의논하고 그것을 실천할 결의도 다지고 있다.

겨레의 통일염원과 의지가 한곬으로 모이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곳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통일관계문서에 남기신 필적을 천연화강석에 그대로 새겨 세운 통일친필비가 있다.

이 통일친필비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그처럼 크나큰 노고를 하시며 불멸의 공헌을 하신 주석님의 위대한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숭고한 뜻에서 건립하신 것이다.

≪**김일성**. 1994. 7. 7≫

비에 새겨진 주석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담겨진 뜻은 실로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하며 위대한 것이다.

조국통일은 주석님의 필생의 뜻이었다.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통감하시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장 큰 선물로 물려주시기 위해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시며 통일의 활로를 개척해 오신 주석님이시다.

사실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내놓으면 주석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바쳐진 헌신의 역사, 애국애족의 위대한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역사적인 친필에는 주석님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강의한 통일의지가 함축되어 있으며 주석님께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노고와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어버이 주석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우리 대에 기어이 통일성업을 완성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시다.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에는 장군님의 불변의 통일의지와 신념도 그대로 깃들어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년전 7월에 열어놓으셨던 남북정상회담을 이번에 성사시키고 성공에로 이끄심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고 7천만 겨레에게 통일확신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었다.

통일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기에 겨레의 통일염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주석님께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평생의 노고와 통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전진하는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

학사 리광선생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12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구도와 전쟁책동으로 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1990년대 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여 완화와 통일에로 움직이고 있던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첩경에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남대화가 동결상태에 빠졌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는 난관이 조성되고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까지 부추겨 우리 공화국의 특별사찰을 강요했고 그것이 좌절되자 그 무슨 우리의 핵문제라는 것을 유엔에 상정시키고 제재를 가해보려고 책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민족앞에는 동족끼리 반목대결하고 큰 나라들의 희생물이 되여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가 아니면 단합해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주체82(1993)년 4월 불후의 고전적노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나라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를 재난에서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고 사상과 제도, 신앙과 재산의 차이를 초월해서 온 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으로 해서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공화국정부와 제정당단체들, 해외교포조직들과 범민련조직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편지를 채택했습니다. 집회와 연구토론회를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활발히 벌렸습니다. 남조선의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와 잡지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전문을 지면 중심에 두드러지게 편집하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문제를 우선시하고 집약화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역사적인 방안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속에서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세계 110개 나라의 10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그것을 광범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체83(199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지지서명운동은 세계 150여 나라에서 1억 3천여만명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 후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투쟁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가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애국적인 통일운동 조직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맡고 있는 임무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동포들속에서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범민련 조직들은 자기 대오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범민련 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측본부는 범민련의 전민족적인 성격에 맞게 자기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완비했습니다. 범민련 해외본부도 각 지역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지방조직들을 결성하고 각계각층 해외동포들을 조직적으로 광범히 결속했습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해외본부와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성과 그 활동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면서 자기 산하에 계층별 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1(1992)년 8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이 결성되였습니다. 범청학련의 결성은 범민련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확대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해내외의 범민련 조직들은 온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합의하고 주체82(1993)년 12월 그의 발효를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련은 조국통일 운동을 뚜렷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범민련은 자기 조직을 공고히하는 사업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과 해외 범민련 조직들과의 연계밑에 범민족대회와 여러 가지 민족대단결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민족적 범위에서 겨레의 통일열망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해내외 각지에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광범한 해내외 동포들의 참가밑에 주체81(1992)년 8월 제3차 범민족대회, 주체82(1993)년 8월 제4차 범민족대회와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들은 우리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온겨레가 사상과 정경, 신앙과 재산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해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서 조국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운동을 확대발전 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하여 다음으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셨습니다. 최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입장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주체61(1972)년 5월 북남대화가 진행되던 첫시기에 최고위급회담을 친히 발기하시고 정세발전의 매시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5월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발기하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체83(1994)년 6월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의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주체83(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사업에 불면불휴의 노고와 심려를 다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최고위급회담의 성사를 위해 그토록 마음을 써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각인 그 잊지 못할 밤에도 억수로 쏟아지는 비소리조차 느끼지 못하시면서 자정이 넘도록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의 대경륜을 펼쳐나가실 역사적인 문건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문건의 첫 페이지 상단에 ≪**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친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크나큰 노고와 무한한 헌신성에 대한 고귀한 증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온 심려를 다 바쳐 마련하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은 경애하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서 밝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영도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크나큰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 온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공동선언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발표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세우겠다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온 민족의 규탄속에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정초에 발표된 우리의 당보와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는 올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선언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았다면 올해에는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데 올해 통일투쟁의 기본임무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남관계에서의 교훈은 이 기본정신을 옹호고수하는데 조국통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온 민족앞에 발표한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보수세력들과 호전분자들의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백두산을 우러른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박광기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일~4일, 6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남 민중의 마음마음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으로 끝없이 물결쳐 가고 있다.

이남 민중은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태양의 인력으로 민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시며 태양의 품으로 만민을 안아주시는 백두태양을 우러러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축원을 드리고 있다.

나는 백두산을 태양의 성지로, 마음과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열렬히 숭상하고 있는 이남의 민심을 여기에 담아본다.

태양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성산이다. 반도 삼천리강산의 발원지이고 민족의 얼과 역사가 깃든 민족의 성산이다. 반만년 민족사가 백두산에 태를 묻고 흘러왔고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대장정의 길을 걸어왔다. 원시조 단군이 민족의 시원을 개척한 곳이 바로 백두산이었고 주몽 또한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시조땅으로 삼고 고구려를 건국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민족은 단군창업이래 민족의 얼, 애국선열의 넋이 뿌리내린 백두산을 더없이 숭상하며 사랑해왔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그토록 숭상하면서 사랑해 온 것은 민족적 자긍심이고 뜨거운 민족애이다. 더욱이 오늘 백두산은 3대 천출위인을 받들어올린 명산중의 명산, 혁명의 성산으로 알려지면서 백두산에 대한 이남 민중의 숭배는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숭배열기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것을 민족의 최대 자랑, 최상의 영광으로 간주하고 있다. 강도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식민지노예로 신음하던 우리 겨레가 바로 이 백두산에서 민족운명의 구세주, 만고의 영장들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백두산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역사가 뜨겁게 새겨져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10대에 광복의 웅지를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20성상 백두영봉과 만주광야를 누비며 포악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실현하신 전설적 영웅이시고 태양이시다.

백두산을 참답한 겨레산악회 회원은 관련서류 90여편을 참고하여 펴낸 도서 백두산 에 백두산이 식민지민족해방의 등불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여기서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항일무장대전을 조직지휘하신 그 무렵부터 우리 민중은 백두산을 민족해방투쟁의 상징으로 삼았고 백두산은 실제로 식민지 조선민중에게 희망의 별처럼 빛났다고 썼으며 민족노래연구모임 새세상회원 또한 자기의 저서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영봉위에 조국광복의 봉화를 높이 지펴올리시어 겨레에게 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신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영웅의 산으로, 광복의 활화산,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었다.

백두산에서 울린 광복의 총성은 2천만 동포를 대거 각성시키고 삼천리강토를 광복의 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8.15조국광복으로 결과되었다라고 서술한 것처럼 정녕 백두산에는 위대한 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 투쟁업적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항일의 여장군으로 명성 높으신 **김정숙**여사도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항일대전에 참군하시어 10여년세월 **김일성**주석님의 휘하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신 항일의 여성영웅이시다. 빨찌산시절 **김정숙**여사는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수호한 수령옹위영웅으로, 가열처절한 전투마당에서 왜적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신 유능한 군사지휘관,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각계 민중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능숙한 정치활동가로써 조국광복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으셨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조국광복의 횃발이 되시어 일만산악을 주름잡으신 여사의 거룩한 자욱이 역력히 어려있다.

혁명의 성산으로써의 백두산의 위상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맞이한 것으로 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백의민족의 신앙의 대상으로 숭상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지도자는 백두산의 천기와 그 웅장한 기상, 백두산에서만 지닐 수 있는 용맹과 담력을 체현한 백두산위인이라고 그려왔다. 백두산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믿음에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답해 나서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광복의 봄우뢰가 메아리치던 역사적 전환의 시기인 주체31 (1942)년 2월 16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셨다. **김정일**장군님처럼 백두산의 태고연한 밀림속 귀틀집에서 그것도 민족구원의 총성이 울부짖는 격전장에서 만고의 영웅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를 양친으로 모시고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고금동서에 유일무이한 전설같은 탄생이며 그 자체가 그분이 천출위인이심을 절감케한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자락에 안겨 항일전의 총성과 천고밀림의 설레임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고 험준한 백두영봉과 검푸른 백두대천지, 끝없이 펼쳐진 구릉과 밀림의 바다를 돌아보며 광란하는 눈보라와 비바람속에서 성장하셨다. 바로 이러한 장군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어 주체위업계승의 웅지와 애국의 심혼을 지니셨으며 빛나는 슬기와 굳센 의지, 강인한 담력과 우주도 한품에 안으실 넓은 도량, 호방한 기풍을 체현하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사상과 영도, 풍모, 덕망이 똑같으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최고영수로 맞이한 바로 이것은 백두산에 다시 없는 영광인 동시에 우리 겨레의 최대의 경사이고 무상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지구촌에는 이름난 명산들과 위인들을 배출한 성지들이 많지만 당대에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천출위인들을 배출한 그런 명산, 그런 성지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 안다. 백두산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의 산이며 백두산은 그분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백두산은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고 그분들의 불멸의 업적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명산으로, 태양의 성산으로 지구위에 우뚝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백두산을 우리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가 태양의 산으로 숭상하고 있다. 올해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맞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밑에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이 성대히 거행되고 백두산선언 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린 백두산을 태양의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산으로 세계에 선포한 일대 사변으로, 위대한 태양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인류의 장엄한 기상과 의지의 과시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될 것이다.

태양의 성산에서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은 우리 행성을 밝게 비추어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빛내이며 지구촌을 **김정일**세상으로 붉게 물들일 것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나라마다 민족마다 민족의 성지 또는 민족의 **으로 숭상하는 산이나 고장, 건물과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 백두산과 같이 민족재생을 안아오고 민족자주위업이 개척되었으며 민족의 거룩한 뜻과 열이 깃든 거대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담력과 **의 상징, 민족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백두산이 민족재생의 발원지, 민족자주위업의 발진지, 그 완성의 사령탑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죽었던 우리 민족을 재생부활시키고 민족의 자주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던 암흑의 그 시기 백두산에 타고 앉으시어 피어린 투쟁으로 민족재생의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오늘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한치의 편차도 없이 굿굿이 이어지고 있다.

백두산이 낳은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사상과 정신으로 시대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고 백두의 의지와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고향을 둔 백두산의 아들이시기에 사상과 성격, 취미도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으셨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정치는 백두혈전의 나날 **김일성**주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이민위천을 구현한 인덕정치, 광폭정치이다. 또한 하나의 전략전술을 세워도 천변만화의 백두산천지조화처럼 세우시고 당을 영도해도 백두의 혁명정신이 꽉찬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군대를 통솔해도 천하무적의 백두강군으로, 국가를 건설해도 백두산악과 같이 끄떡없는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신다. 말 그대로 백두산의 전도와 슬기가 그분의 온몸에 차고 넘쳐 옷을 입으셔도 빨찌산복과도 같은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잠에 드셔도 빨찌산처럼 쪽잠으로 피곤을 푸시고 끼니를 에워도 빨찌산처럼 주먹밥을 드시고 노래를 감상해도 빨찌산행진곡과 같은 혁명군가를 좋아하신다.

백두산형의 인간,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뛰어난 정치실력은 지난 7년간 혁명실천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에 유래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제국주의연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셨다.

지난 20세기 90년대의 북미핵대결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 선전포고 없는 준엄한 대결이었다. 지구상에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공세와 도전이 극도에 달했다.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에 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은 더욱더 심화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북 민중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는 민족최대의 대국상을 당하였으며 연이은 엄혹한 대자연재해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실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수가 많지 않으며 게다가 분열된 나라가 고립무원한 처지속에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대결은 이북 민중의 운명만이 아닌 사회주의운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전도까지 거머쥐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여야 하였던 준엄한 전쟁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로 쾌승을 거두셨다. 그토록 첨예한 조미핵대결의 승리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의 격파,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와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적 진전, 국제적인 고립포위환을 산산히 짓부시고 이북의 대외적 권위강화, 이 모든 것은 선군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선군정치야말로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한 승리의 보검이다.

오늘 세계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너남의 봉화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이북의 장엄한 모습을 통해 선군정치야말로 근로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정치방식이며 백전백승의 위력을 전도하는 만능보검임을 직시하고 있다.

새 역사연구회 정진철회원은 이북은 선군의 총대로 침략의 총검을 제압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 이북군에 의해 세계 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아니라 이북군이다. 진정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생명선일뿐 아니라 번영의 대문을 여는 행운의 열쇠이다. 라고 쓴 것은 이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는 총대중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일찍이 위대한 백두산총대가정, 군인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총과 숨결을 같이 하신 장군님이시기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거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쥐시고 총대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총대정신이다.

장군님의 총대정신에는 만경대가문의 총대역사가 깃들어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김일성**주석님께 남기신 유산은 지원의 뜻이 어린 2자루의 권총이었고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숙**여사께서 **김정일**장군님께 물려주신 유산도 백두산에서 시원된 자주위업을 총대로 사수하고 기어이 완성해 낼 것을 바라시는 원대한 뜻이 담긴 2자루의 권총이었다.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은 장군님의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되었다.

21세기 연구위원회 최덕준교수는 빨찌산의 아들 이라는 글에서 **김정일**장군은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에 태어나시며 성장하셨다.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애국투사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략있는 민족의 **들인 빨찌산들속에서 장군께서 성장하셨다. 어리신 장군께서 제일 애용하셨던 놀이감도 투사들이 만들어드린 나무권총과 조국의 쪽무의 지도였다. 그분께서는 그 나무권총에서 영장의 기개를 닦으셨고 그 쪽무의 지도에서 절세의 위인의 애국심을 키우셨다. 장군께서는 그때 벌써 조국과 민족을 알고 혁명을 아셨다. 사랑과 증오도 아셨고 총대의 철학도 새기셨다. 항일대전은 정녕 장군께 투철한 자주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키워준 폭풍우속의 교양, 혁명의 배움터였다. 고 썼으며 2000년에 발행된 이남의 출판물인 **김정일**의 통일전략 에 어리신 **김정일**위원장께서 보신 것은 전설의 영웅 **김일성**주석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단결하여 미군의 맹렬한 폭격과 싸우고 있는 조선백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소년 **김정일**위원장께서 보신 것은 1953년 7월 27일 사상 최강의 초대국 미국을 물리치고 전승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과 국민의 모습이었다. 라고 쓰여진 것처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고 반미대전의 포화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장군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철의 의지를 가다듬으신 것이다. 이렇듯 백두의 혁명정신, 총대정신을 구현한 선군정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인류의 자주위업완성의 그날까지 필승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될 것이다. 변혁과 승리의 상징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진두에 서시어 빛나는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고수될 것이며 보다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암흑의 밤하늘에 백두산 장수별로 떠오르시어 우리 겨레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봄을 주시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새 봄을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솟아 향도의 햇발을 뿌려주시기에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백두산민족, 태양민족으로써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높이 선양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성산 백두산

오늘날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써뿐 아니라 우리 민족 통일운동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통일의 성산으로써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백년을 넘게 지속된 민족분열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백두산을 알아야 하고 백두산을 도와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혈통을 굿굿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남의 민심이다.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조국이 있으며 백두산과 함께 우리 겨레의 단합이 있고 우리 조국의 통일도 있다. 넋을 지녀도 백두산을 넋을 지니고 뜻을 따라도 백두산장군의 뜻을 따를 때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이룩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이남 민중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어제날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중이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신 백두산을 희망봉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이남 민중은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태양의 성지로 간직하고 백두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만을 우러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남 민중은 백두산을 너도 나도 찾아가고 있다. 평양을 찾는 인사들은 물론이고 방북의 길이 막히면 남의 나라 땅을 끼어서라도 기어이 백두산정에 오르고 있다. 지난날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조국광복의 푸른 꿈을 안고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백두산 혁명근거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그때처럼 오늘은 우리 남녘 겨레들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을 찾아 끝없이 흘러드는 것이다. 백두산에 오른 이들은 국토분단의 기운을 제일 가슴 아프게 감각하며 백두의 넋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해야되겠다는 불같은 결의와 각오로 가슴들을 끓이고 있다.

몇해전 평양을 방문한 기회에 오매불망 마음속으로만 오르던 겨레의 성산에 올라 천하제일산 백두산 해돋이를 부감한 이남의 통일산악회 전채환부회장은 자기의 목격상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백두산의 해돋이, 정녕 그 순간은 백두서막이 받들어 올린 위대한 태양의 광명속에 이 강토 삼천리가 남도 북도 따로없이 하나로 태어나는 격동의 시각이었다. 오! 백두산일출로 밝아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통일이여! 조종의 성산 백두의 하늘가에 솟는 찬란한 태양은 그대로 통일조국의 상징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떠올라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다. 저 백두의 태양이 발산하는 무한대의 빛과 열과 인력앞에 기나긴 분단의 어둠이 무엇이며 냉기 서린 대결의 동토대가 무엇이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다. 아! 일구월심 통일을 갈구하는 온 겨레가 우러러 따르는 통일의 영수 **김정일**장군님.

정녕 백두산의 해돋이처럼 삼천리강산을 환히 비춰줄 사상이론적 예지와 이 나라 모든 산악과 장강들을 한품에 안은 백두산과도 같은 넓은 도량과 한없이 따사로운 포옹력,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서맥과도 같이 우리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가실 영도의 거장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오르신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한 지맥으로 잇닿은 삼천리강토가 둘로 갈라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바치고 계신다고 한다.

주체61 (1972)년 6월, 사선을 헤치고 방북한 통일혁명당(한민전 전신) 대표단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며 조국의 상징이라고, 우리 민족의 혈맥은 모두 백두산과 이어져있다고 그래서 백두산은 어머니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백두산에 오르면 남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는데 그러면 저 멀리 남해와 한라산까지 보이고 남녘 민중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알자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며 조선에서 혁명을 하려면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시며 통일혁명당 대표단의 백두산 등정을 위해 청년돌격대를 무어 1, 2미터 높이로 덮힌 눈을 파내어 등산길을 마련해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의지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민족의 생활권을 기필코 다시 잇자는 것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도로를 남북을 연결하는 산줄기처럼 백두산기슭에서 시작된 철길은 남북을 연결하는 강줄기처럼 모두 하나로 잇자는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불굴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하고 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통일의 주체적인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시며 모든 통일운동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신다. 또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통일행사들이 백두산을 원점으로 하여 거행되도록 하시어 백두에서 시작된 통일대행진이 한라까지 이어지도록 정열적으로 이끄시고 계신다. 그리하여 오늘 백두산은 통일운동을 발원시키고 확산시키는 통일운동의 성지로 되고 있다.

주체77 (1988)년 8월 광복절을 맞으며 백두산정에서 국토분단대행진출정식에 이어 1985년 7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출정식, 1990년 8월에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회 범민족대회개막과 조국통일촉진백두한라대행진출정식이 백두산에서 거행되었다. 이 모든 행사들에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참가하여 한결같이 민족단합을 주장하였고 민족통일을 절규하였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통일행사는 오늘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한라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7천만 겨레 모두가 동참하는 전민족통일대행진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백두산은 또한 민족대단결의 성지이다. 백두산을 찾는 답사길에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다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백두산은 온 겨레의 결집장으로 되고 있다. 우리 겨레의 백두산답사길은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로 이어지고 겨레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길로 되고 있다. 이남의 각계층 민중과 해외교포들은 백두산답사길에서 애국애족을 신념화하고 통일애국투사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듯 백두산을 우러러 통일애국투사들이 늘어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조국통일의 여명도 찬연히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우리 민족통일의 활로는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있다. 주체89 (2000)년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에 가득차던 남북관계를 화합과 통일의 궤도에 올려세우고 전반적 통일운동을 급격히 앙양시킨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참으로 백두산은 태양의 성산, 혁명의 성산, 통일의 성산이며 백두태양은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고 온 겨레를 통일된 강성대국향도에로 이끌어주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다.

오늘날 우리 이남 민중속에서 백두산에 대한 숭상의식도가 급격히 고양되고 운명도 미래도 그에 모두 맡기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숭배열기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이남의 주요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과 인터넷사이트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존귀하신 영상과 그분들의 위인상과 영도업적을 찬양하는 기사가 수백번씩 실리고 있으며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백두산전설집 , 백두산의 품 등 각종 출판물들이 공개 합법적으로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백두산사진전이 개최되며 대학가들에 백두산천지와 진달래꽃을 형상한 그날이 오면 , 백두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새날이여 등의 대형화판들이 나붙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유격대의 민족해방투쟁을 형상한 금강가극단의 백두산 공연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것은 말그대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뜨거운 충심, 백두태양에 대한 숭배열기, 태양의 열풍인 것이다.

오늘도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하고 계신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자긍심과 장군님계시어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신념은 이남 민중의 가슴속에서 더욱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지금 이남의 경향 각지에서는 위인칭송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 백두태양찬가 가 울려퍼지고 있다.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억센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이남 민중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는 21세기에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주체사상과 온 세계의 자주화

김상진 / 구국전선 제474호 주체91, 4월 11일

인류는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화된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구위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을 자주화의 기본이념으로 거머쥐고 나가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온 세계의 자주화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불멸의 기치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화위업수행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역량 즉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없는 새 세계를 창조하려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통일단결된 힘이다.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체는 스스로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지향과 목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어야 이룩될 수 있다.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체를 강화하는 데서 비동맹운동을 역사발전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반제자주역량의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반제자주역량의 단결된 힘과 공동행동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으며 민족에 의한 민족의 예속,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가 없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승리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명시하신 온 세계 자주화강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계를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걸맞게 개조하고 인간에게 복무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독창적 강령이다.

인간의 생명이 자주성인 것처럼 민족의 생명도 자주성이고 인류공동의 생명도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민족도 그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인류공동의 생명이 자주성으로 되는 것은 인류가 세계적 범위에서 뭉친 사람들의 집단, 민족들의 공동체로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인류의 자주성이 실현되려면 전세계적 범위에서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세계자주화의 한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한국민중이 이 땅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세계자주화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관한 사상에는 바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대하며 인간자체의 힘으로 세계를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게 개조할데 관한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리가 담겨져 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 인류 공동의 명절

조선중앙통신 주체91, 2월 28일~4월 8일

태양절기념 적도기네위원회 결성 (2/28)

태양절기념 적도기네위원회가 12일 말라보에서 결성되였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도기네 교육 및 과학담당 국무상이, 부위원장으로 적도기네민주당 국제비서가 선출되였다.

위원회는 태양절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토의결정하였다.

로작, 라오스에서 출판 (3/8)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1일 라오스국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은 머리글에서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력사에 쌓아 올리신 그이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기념 민주꽁고전국준비위원회 결성 (3/12)

태양절기념 민주꽁고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 민주꽁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태양절은 인류공동의 명절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 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진행 예정 (3/15)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이 되는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주체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세기를 이어 빛내여 가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 깊은 세계적인 예술축전으로 된다.



축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풍모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는것으로 하여 보다 뜻깊게 장식될것이다.

세계 5대륙의 60여개 나라에서 오는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과 명배우들로 구성된 90여개의 예술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들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이번 축전무대들에는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인류의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중국 인디아 우간다, 태양절기념행사 진행 (3/16)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 인디아대외정책연구소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에서 친선모임과 기념집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가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

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중국 료녕성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은 친선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대외정책연구소 국장은 기념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인민과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 나게 하였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는 주체사상을 20세기뿐아니라 21세기에도 진보와 번영, 행복의 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비롯한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인디아대외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기념집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한편 3월 6일 우간다 캄팔라시 키탄테인민학교 **김정일**학급에서는 태양절기념노래모임이 진행되였다.

명절 기념 위한 문제들 토의 (벌가리아, 3/16)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벌가리아위원회 합동전원회의가 2월 28일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전세계적인 축전으로 특색 있게 경축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이 벌가리아에서도 활발히 진행된데 대하여 총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세계적인 축전으로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당면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벌가리아대표의 귀환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합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가지였다.

로작, 나이제리아에서 출판 (3/17)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나이제리아의 에누구주출판사에서 11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61(1972)년 5월 3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밝혀 져 있다.

김일성주석회고모임 진행 (우간다 윈, 3/20)

태양절에 즈음하여 12일 우간다전국운동서기국의 주최로 캄팔라에서 **김일성**주석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우간다전국운동서기국 대외관계국 부국장은 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인류의 진보를 위한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석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사회주의위업과 평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귀감으로 되고 있다.

20세기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태양절과 더불어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14일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에서도 **김일성**주석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에 언급하면서 그이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태양절기념 도서 사진전시회 우간다에서 진행 (3/20)

태양절기념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13일 우간다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는 도서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우간다력사박물관 관장은 전시회개막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 져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의 수령이시며 스승이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은 20세기 정치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비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련합토론회 인디아에서 진행 (3/22)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16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와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주체철학과 현 세계≫라는 제목의 련합토론회가 델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인 하리쉬 굽따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고 이를 혁명실천에 구현하시여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함께 심오성, 보편성, 혁명성으로 하여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길을 명시한 진보적사상으로서 우리 시대는 물론 미래를 대표하는 인류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류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한 지도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련해 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나이제리아 에티오피아, 태양절기념행사 진행 (3/22)

태양절에 즈음하여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연단≫ 개막식이 15일 나이제리아기자동맹에서 진행되였다.

나이제리아기자동맹 보조비서는 개막연설에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서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신데 대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는 탑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엠. 엠. 알하싼은 연설에서 만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천재적인 령도실력과 정치방식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연단≫의 사명과 과업들이 제시되고 연단을 나이제리아의 광범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널리 리용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태양절기념 조선영화상영주간이 15일 에티오피아에서 개막되였다.

적도기네 이란 라오스, 태양절 행사 진행 (3/23)

태양절에 즈음하여 적도기네, 이란, 라오스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한평생은 조선인민을 영웅적인 인민으로 되게 하시고 조선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한생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은 세계가 다 아는 나라로 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6개국, 태양절기념행사 진행 (3/28)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16일부터 22일사이에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태양절기념집회가 메히꼬인민사회당과 체스꼬에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의 주최로 쁘라하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토론회가 나이제리아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태양절기념 사진전시회월간 개막식이 우간다에서, 영화감상회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였다.

한편 태양절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뻬루에서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였다.

행사들에서는 **김일성**주석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라는데 대해 강조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조선영화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위대한 생애의 1994년≫ 등이 상영되였다.

로작, 메히꼬에서 출판 (3/28)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20일 메히꼬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관철할데 대하여 지적되여 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고통련 행사 진행 (3/30)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이 23일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서 백영진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탁월한 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동포들은 그이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배구,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로작, 꾸바에서 출판 (3/31)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20일 꾸바도서협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머리글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꾸바도서협회출판사가 꾸바인민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미제와 남조선반동세력에 맞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서 그이의 로작을 출판한다고 지적하였다.

회고록 160여개 나라에서 애독 (4/1)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이 기간 회고록은 세계적판도에 널리 보급되였다.

회고록 제1부-항일혁명편 1, 2권이 발표되여 6개월 남짓한 기간에만 하여도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15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회고록의 구성체계와 장, 절들의 전문과 상세한 내용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인디아, 캄보쟈, 벌가리아, 뽈스까, 에티오피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름 있는 출판기관들과 단체들에서는 회고록을 출

판하였다.

회고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개의 어종으로 번역출판되였는데 그것은 수십만부에 달한다.

중국과 로씨야에서는 회고록의 항일혁명편 1권부터 8권까지 9만 1,200여부 발행하였다.

네팔에서는 1권부터 7권까지 발행한데 이어 8권에 대한 출판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는 회고록 1, 2, 3권을 백봉문고로 발행하였으며 그 전문을 잡지 ≪주체사상연구≫에 련재하여 세계 130여개 나라에 배포하였다.

회고록은 오늘 여러 나라의 책방과 도서관들, 사회단체들을 통해 널리 펴져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회고록은 세상에 나온 후 세계5대륙의 160여개 나라에 급속히 보급되였다.

몽골, 민주꽁고, 뽀르뚜갈, 뻬루를 비롯한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회고록에 대한 연구토론회, 감상발표회, 강연회, 독보회 등이 해마다 진행되였으며 파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전국적규모의 련합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네팔에서는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이 조직되였으며 말리에서는 4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회고록 독서월간으로 설정하였다.

부르끼나파쏘 대통령, 뽀르뚜갈 전 대통령, 적도기네 전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정계인사들이 또한 회고록을 애독하였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기념우표 발행 (4/2)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기념우표가 나왔다.

우표는 웃부분에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는 글을 새기고 화면 중심에 축전마크와 기발 그리고 비둘기를 형상하였다.

그리고 왼쪽 아래부분에 축전상을, 오른쪽 아래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어린시절 발자취가 새겨 진 만경봉과 태양절(4.15)을 노래하는 5대륙의 예술인들을 형상하였다.

우표에는 또한 가요 ≪평양축전가≫의 일부가 그려 져 있다.

우표의 크기는 36미리메터×45미리메터이며 액면은 10전이다.

발행부수는 10,000(천공), 500(비천공)이다.

올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주석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여 진행하는 인류공동의 경축무대이다.

태양절 즈음하여 수리아정당지도자들 좌담회 (4/2)

태양절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정당지도자들의 좌담회가 3월 27일 디마스끄에서 진행되였다.

좌담회에서 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한평생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된 불패의 무기로 미국의 고립압살책동과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권리수호를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지배세력의 책동은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좌담회참가자들은 반제자주위업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로동당과 자기 당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5개국, 태양절기념행사 진행 (4/2)

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웨리예, 벌가리아, 기네, 싱가포르, 적도기네에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영화상영 주간 및 월간 개막식, 사진전시회 개막식,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사진전시회 개막식에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였다고 말하였다.

기네국방성 군의국장은 ≪조선의 행운≫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조선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태양절기념 뷸레찐 발행 (4/2)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3월 27일 태양절기념 뷸레찐을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업적을 회고한다고 썼다.

뷸레찐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 ≪민주주의적정부수립을 위한 투쟁≫, ≪조선통일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체스코 베닌, 태양절기념강연회 진행 (4/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연회가 3월 23일과 27일 체스꼬의 체히-모라바공산당과 베닌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에서 진행되였다.

체히-모라바공산당 중부체스꼬주 님부르끄군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20세기 정치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밝히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였으며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조선인민뿐아니라 인류에게 진보와 번영을 안겨주신 위인이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확고히 계승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자주성과 련대성의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은 오늘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맑스주의자) 중앙위원회 집행리사회 위원장 보리스 뻬뜨꼬브는 토론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적풍모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을 받드는 전사의 자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참다운 공산주의도덕관을 세우는데서 실천적모범을 보여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3월 25일 메히꼬주체철학연구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셋째부분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태양절기념 뷸레찐특간호 에짚트에서 발행 (4/3)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짚트조선친선협회에서 3월 24일 ≪조선의 행운≫이라는 제목의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모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 올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족의 구세주이시며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뷸레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대전을 전개하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민주개혁을 실시하시고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실로 그이는 20세기의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가이시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영원한 주석≫으로 호칭하면서 그이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성대히 기념하고 있다.

벌가리아 메히꼬, 로작연구토론회 (4/3)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에 대한 벌가리아공산주의적정당들의 련합토론회가 3월 25일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알렉싼더르 빠우노브는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과 거룩한 모습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벌가리아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건당, 건국, 건군위업과 조선식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나왔다 (4/4)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선전화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이번 축전의 형식과 내용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다.

매 선전화들마다에는 축전마크가 그려 져 있고 맨 아래에는 축전기간(4.14-4. 25)이 표시되여 있다.

선전화 ≪환영≫에는 축전도시 평양으로 찾아 오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대표들을 축하하는 의미의 꽃테프로 이번 축전의 차수를 표시하는 20이라는 수자가 새겨 지고 그 밑에 붉은 꽃송이들이 형상되여 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녀성가수를 배경으로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과 기악연주, 무용, 남녀배우의 공중교예 장면 등 축전의 형식과 내용을 보여 주는 선전화들도 특색이 있다.

선전화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 ≪제5차 현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도 축전의 리념과 국제적성격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선물에 비낀 위인상 - 169개 나라에서 16만 5,800여점 (4/4)

16만 5,800여점의 지성어린 선물,

이것은 주체34(1945)년 8월 조국광복직후부터 오늘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세계 5대륙의 169개 나라에서 올린 선물 수자이다.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 진렬되여 있는 이 선물 수자에는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주석의 위인상이 집대성되여 있다.

태양의 모습으로 빛나는 주석의 초상화들과 뜻 깊은 축하문들, 값진 수예품, 조각품, 공예품들, 금, 은, 보석제품들, 수천년전의 력사유물들 등은 모두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귀하고 희한한 보물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석의 90성상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펼쳐 보이는 이 선물들에 슴배인 인류의 지성과 헌신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중에는 수리아 아랍만 공보기구 국장이 이름난 미술가와 함께 석달동안이나 침식을 같이 하면서 주석의 고전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갖의 아랍어 글자로 훌륭히 형상한 주석의 초상화가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90여명을 동원하여 1년남짓한 기간 온갖 지성을 다하여 완성한 상아조각 《만경대고향집》도 있다.

그리고 나이제리아 우모지공동체왕이 올린 《태양의 족장》의 옷과 모자, 지팽이, 의자를 비롯하여 주석의 서거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여 온 선물들도 수없이 많다.

심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생각할수도 마련할수도 없는 이 모든 선물들이 전시되여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위인칭송의 대전당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고 있다.

로작, 단마르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4/4)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3월 20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2(1993)년 4월 6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할데 대한 제반 문제들이 밝혀 져 있다.

뻬루에서 불레찐특간호 발행 (4/4)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3월 25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불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조선의 태양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세기 정치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기신 **김일성**주석은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태양과 같이 한생을 빛내이신 전설적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오늘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태양절을 공동의 명절로 기념하려는 열망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조선인민군이 세계적인 강군으로 명성 떨치고 있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레찐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자랑찬 로정에 언급하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자기 발전에서 최성기를 맞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 민주꽁고 뻬루, 태양절 토론회 진행 (4/5)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민주꽁고, 뻬루에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은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화를 위한 위업에 실로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칭송받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뻬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 피워 주시고 특출한 인품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위인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인민군이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 민주꽁고, 회고록 토론회 진행 (4/5)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3권에 대한 토론회가 3월 30일 로므니아근로자협회에서 진행되였다.

협회위원장은 토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계심으로 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한편 3월 7일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회고록 항일혁명편 5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소조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주석의 빛나는 한평생 (4/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외국의 벗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다.

주석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영원한 광명의 빛을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때로부터 주체83(1994)년 7월 6일까지 집필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가운데서 지금까지 출판된 로작들은 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108개 나라에서 63개의 민족어로 출판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나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근 반세기동안 그이께서는 8,000여차에 걸쳐 전국의 1만 8,0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장장 55만여의 로정을 이어 가시였다.

주석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50여차에 걸쳐 연 80여개 나라를 공식 및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국가수반, 당수반, 정부수반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공화국영웅칭호(3차), 로력영웅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세계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최고훈장과 메달, 30여개 도시의 명예시민칭호, 외국의 이름 있는 20여개 대학들에서 명예교수와 명예박사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170여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진보적인민들로부터 16만 5,000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다.

주석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발현되여 중국과 몽골에 그이의 동상이 건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수여되고 있으며 100여개 나라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주석의 존함이 모셔 졌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는 20세기와 더불어 흘러 온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였다.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 도착 (4/6)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위원장 윤 피터슨을 단장으로 하는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재룡부부장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여러 나라 대표단과 예술단 도착 (4/6)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몽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스. 쑤렌쟈브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태양절기념대표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또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몽골예술단, 교예단과 축전기간에 진행될 제5차 현 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에 참가할 몽골대표단, 위원장 얀 월도르프를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국제공업리사회대표단이 도착하였다.

5개국, 태양절 건군절 행사 진행 (4/6)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에짚트, 뻬루, 메히꼬에서 조선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조선도서들과 수공예품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 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한편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벌가리아에서는 발칸태권도구락부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태양절기념뷸레찐 우간다에서 발행 (4/6)

태양절에 즈음하여 1일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에서 ≪**김일성**, 영원히 빛나는 존함≫이라는 제목의 기념뷸레찐을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시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된 새 시대, 자주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뷸레찐은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그이의 사상과 령도력,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계승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세기를 이어 조선인민만이 아닌 전체 진보적인류의 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뷸레찐은 지적하였다.

재중동포들, 기념도서들 출판 (4/7)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기념도서들을 출판하였다.

청도인민출판사에서는 ≪민족대단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석의 로작묶음집을 출판하였다.

료녕민족출판사에서는 도서 ≪**김일성**주석과 려운형≫을 발행하였다.

도서는 애국지사 려운형선생이 반일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주석을 우러르며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썼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선생과 그의 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명 깊게 서술하였다.

7개국, 태양절기념행사 진행 (4/7)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슈에서는 기념집회가, 탄자니아, 로씨야련방, 리비아, 말레이시아, 이란에서는 조선도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도서, 사진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는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가장 걸출한 령도의 거장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집회들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에게 ≪국제김일성상≫ 수여 (4/7)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1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에게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이 상을 받게 되였다.

제15차 ≪만경대상≫ 국제마라손경기대회 진행 (4/8)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제15차 ≪만경대상≫ 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에티오피아, 우즈베끼스딴, 중국, 케니아, 조선(1, 2조)선수단과 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체육지도위원회 박명철위원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와 경기대회 상징 기발이 게양되였다.

경기대회에서는 남자 모똘로켕 싸오팔렐웨즈(남아프리카)가, 녀자 함봉실(조선)이 1위를 하였다.

성대히 진행될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4/8)

태양절(4.15)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이 축전은 주체71(1982)년부터 해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국제적인 예술회합이다.

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의 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60여개 나라에서 오는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과 명배우들로 구성된 90여개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과 조선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성악, 무용, 기악,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르게 될 축전에는 외국의 예술인들만도 근 1,000명이나 참가하게 된다.

단독 및 조별 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전에서는 우수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상장과 상금, 상이 수여된다.

축전에서는 ≪제5차 현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도 진행된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조선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룡문대굴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참관하게 된다.

또한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준비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는 특전도 누리게 된다.

혁명사적도서 ≪우의의 장정≫을 중국에서 출판 (4/8)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흑룡강성에서 도서 ≪우의의 장정≫을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 주시고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켜 오신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혁명적의리, 위인적풍모, 그이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다함 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을 보여 주는 생동한 사실적자료들이 수록되여 있다.

도서에는 만면에 환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김일성**주석의 영상이 모셔 져 있다.

도서에는 또한 **김일성**주석께서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 항일연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시는 사진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강택민주석을 만나시는 사진이 모셔 져 있다.

도서에는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칭송하여 쓴 강택민주석의 글 ≪공적은 탁월하고 위업은 영원하리≫가 편집되여 있다.

도서에는 주석의 항일혁명사적과 관련한 사진들과 그이의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연고자들과 연고자들의 자녀들, 항일사를 전문하는 중국의 전직 및 현직학자들, 문인들이 쓴 20여편의 글들과 일화, 전설 등 수십편의 짧은 글들과 함께 중국 동북각지에서 그이를 칭송하여 널리 불리워 졌던 수십편의 가사들도 편집되여 있다.

도서의 부록에는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김일성**주석께 보낸 전문들과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여 한 연설문들(발취),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반일부대들의 공동투쟁년대표와 련합작전지역략도들이 첨부되여 있다.

로므니아공산당과 도이췰란드공산당, 태양절 건군절 집회 진행 (4/8)

태양절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2일과 3일 로므니아공산당과 도이췰란드공산당 청사들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인류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 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조선의 현실과 결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도이췰란드공산당은 언제나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

북남공동보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주체 91(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남측 특사와 일행을 접견하여 주시고 김대중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전달 받으시였으며 만찬을 차려 주시였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림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 정세와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갈데 대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북남사이의 끊어 진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동해지구에서 새로 동해선철도 및 도로를, 서해지구에서 신의주 - 서울사이의 철도 및 개성 - 문산사이의 도로를 빨리 련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련결, 개성공업지구건설, 림진강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분과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고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리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북남군사당국자사이의 회담을 재개할데 대해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체 91(2002)년 4월 5일
평 양

북남공동보도문, 6.15선언리행 새 전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 나아가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 민족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을 따라 북과 남이 외세의 강경책으로 초래된 심각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 나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였다.

지난 5일 남조선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북과 남이 나라에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는데 합의, 부쉬 미국정권의 등장이래 조성되였던 복잡한 사태를 수습, 타개해 나갈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엄혹한 사태를 우리 민족끼리 모여 앉아 토의, 헤쳐 나가는데 뜻을 모은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며 온 겨레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남조선특사의 평양방문은 부쉬정권의 대조선압살정책의 로골화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문제를 토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특사를 접견하시였으며 김대중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으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가 림동원특사와의 회담에 림하였다. 이것은 이번 회담이 북과 남의 두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되였으며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한겨레가 한자리에 마주 앉은 귀중한 자리였음을 보여 준다.

회담결과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 밝혀 진것처럼 쌍방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 동결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철도련결문제와 대화,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뿐아니라 새로 동해선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데 합의한것은 이 사업이 우리 나라와 미국이 관할하는 군사분계선을 뚫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중대한 사업으로서 정치, 군사적의미가 클뿐아니라 이 철도가 장차 로씨야와 련결될것이 예견되여 있어 경제적의의도 매우 큰 사업이다. 또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미국의 방해소동으로 난항을 겪던 금강산관광활성화,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등등 현안이 풀리게 됨으로써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외세의 무모한 강경소동과 견결히 맞서 자주성을 고수해 온 우리 나라의 견결한 립장과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회담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쳐 나가는가 하는것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함에 있어서 초미의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으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 화해단합을 도모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은 남측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3일, 3월에 진행된 조미접촉결과를 발표, 케도와의 협상재개등 미국과의 긴장상태를 풀어 나가는데서 일정한 전진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무근거한 협담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보도문이 발표된후 미국조선담당특사의 평양방문문제와 조미대화재개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성된 긴장상태에 대처하며 원상회복을 합의한 이 시기 더 이상 통일을 위한 민족의 전진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조건들을 걷어 치워 조미회담에 응해 나와야 한다.

2002/04/10 조선신보



통일연대, 남북공동합의 환영 논평 발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의지를 재확인한 남북공동합의를 환영한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의 평양방문으로 이루어진 남북공동합의와 논의사항을 4월 6일 남북이 동시에 발표하였다. 남북 관계 동결을 타개하고 6 · 15 공동선언 실현의 의지를 또다시 밝힌 공동 합의문을 요약하면 ≪상호 존중, 긴장조성 방지≫, ≪ 동결된 남북관계 원상회복≫, ≪ 경의선, 동해선의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연결≫, ≪ 대화협력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월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및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등을 토론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 가동≫ ≪금강산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자 회담 6월 11일 개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서 4월 28일 진행≫, ≪경제시찰단 5월중에 남측에 파견, 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 하에 서로 협력≫이다.

통일연대는 6 · 15남북공동선언 파탄 위기,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민족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루어진 남북공동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첫째, 이번 합의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미국의 치열한 공세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남과 북을 이간질시키려는 미국의 본질적 의도는 그들의 패권주의적 전쟁야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북미관계 냉각과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한 남과 북의 공통된 인식이야말로 이번 임동원특사의 방북과 남북합의를 이루게 된 근본 힘이며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한번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조, 6.15공동선언의 실현에서 우리민족의 공존공영의 살길을 찾게 된 것이다.

아직도 임동원 특보가 외세공조를 국제공조라는 말로 탈바꿈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으나, 이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방법 이외에 그 어떤 길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합의는 그간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6.15공동선언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민족화해협력사업지속추진, 상호존중, 남북관계원상회복,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협력의 원칙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간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제 6.15공동선언이행의 제반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외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민족화해 협력 사업 추진으로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선과, 민족의 장벽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경의선,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연결등은 휴전협정의 문제등 군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되며, 남북관계 원상회복은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을 해소해야함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동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을 벌여야 함을 밝혀주었다.

이렇듯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화해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이 김대중 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후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한 통일방안의 튼튼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공동합의는 민족 앞에 놓인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격적이고 소중한 합의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 통일 수구세력에 의해 이 소중한 합의가 실현되는데 난관이 조성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북에 대한 주적론의 철회, 한미군사공조체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미국의 방해에 부닺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난관을 뚫어내는 것은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의지이기 대문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차단하고 민족간 화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면한 아리랑축전을 비롯한 민족화해협력사업을 거족적으로 성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미반전평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2. 4. 7.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꿈같은 현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7일~8일

≪당국이 하던 말과는 너무너무 차이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눈먼 소경처럼 속아왔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이 눈으로 보니 이북이야말로 살 멋이 참세상, 꿈같은 세상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평양에 가서 형님을 만나보고 온 김모씨의 말이였습니다.

그럼 이번 차례에는 김모씨의 글 ≪꿈같은 현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안고 산다. 그 희망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꿈도 꾸어보며 그날에 대한 설계로 가슴 부푸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나 역시 희망을 품은 채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 나의 소망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분단으로 갈라진 혈육, 나의 형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였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간의 상봉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 겨레는 그 단순한 만남이 어찌하여 그리도 어려웠던 것일까.

이별의 고통속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만이 덮싸이는 가운데 흘러온 50여년, 실로 긴긴 세월이었다.

그런데 암흑으로 뒤덮였던 분단의 장벽이 갈라지고 이 땅에도 밝은 서광이 비쳐들었다.

2000년 6월이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 그 광휘속에 꿈으로만 찾고 부르며 희망으로만 그려보던 그 상봉, 그 만남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었다.

예로부터 복은 쌍으로 안온다고 했지만 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쳐드는 삼천리강토에는 복과 기쁨이 쌍으로 겹으로 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내가 형님을 만나러 평양에까지 가게 될줄이야. 이게 꿈이 아닌지...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었다.

나는 형님과 10살 때 헤어졌다. 형님이 1950년 의용군에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떡을 했었다.

그날 형님은 짧아서 석달, 길어서 반년이면 다시 돌아오겠는데 그때 미국놈들을 다 쳐부수고 통일노래 부르며 돌아오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해주는 떡을 또 먹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에게 어머니 말 잘 들으라고 당부를 남긴 채 웃으며 떠나갔다.

나는 그 웃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 형님을 5년이 아니라 장장 50년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흘러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전쟁후 의용군가족이라고 경찰들이 온갖 못된 짓과 행패질을 다할 때에도 형님의 말대로 미국놈 망할 날 꼭 온다고 외우시던 아버지. 그리고 반공광신자들이 남에서 간 의용군들이 북에서 학대받고 있다느니 생활이 곤란해 다 죽었다느니 하고 떠들어댈 때도 전쟁 때 인민군대가 주고 간 **김일성**장군님 초상사진을 꺼내보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보며 통일세상이 꼭 올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던 어머니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토록 믿고 믿는 신념이 있었기에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드디어 뜻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은 것이 아니겠는가.

2000년 11월 나는 형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가슴 양쪽을 가득 채운 눈부신 훈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사해주셨다는 시계며 표창장들.

≪형님, 형님은 정말 북에서 대성하셨군요. 형님은 워낙 이악하셨죠.≫

≪그래, 나는 북에 와서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나의 노력이나 선천적 기질때문만이 절대 아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이처럼 북의 큰 간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내가 안긴 품이 따사롭고 나를 이토록 내세워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다.≫

형님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18살 나이에 의용군으로 북에 간 형님은 그야말로 혈혈단신이었다. 그러나 북에서는 형님을 한 형제로 따뜻이 대해주었다.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며 남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고 졸업후에는 이북의 큰 간부로 기용해주었다. 그리고 형님이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해주며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이었고 새기면 새길수록 희한했다.

≪내 인생이 이렇듯 값높은 절정에로 오를 수 있은 것은 다 민중을 위한 세상인 공화국의 덕분이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국가정사를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대기업소의 지배인, 노력영웅으로까지 될 수 있었겠니. 이것은 결코 나 하나만의 생활담, 행복담이 아니다. 남에서 온 모든 사람들, 아니 이북민 모두가 하나같이 누리고 있는 행복상이다. 이제 통일이 되면 7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꺼야.≫

형님의 이 말을 눈물속에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북 사람들 모두가 우리 형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구나.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으로 비록 생활은 넉넉치 못하고 물질적 풍요는 누리지 못해도 우리 이남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진짜 부자로 살고 있구나.≫

나는 형님의 밝은 모습, 희망과 자신감 넘친 목소리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 민족의 참다운 미래가 바로 북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형님을 만난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를 정성스레 썼다. 형님을 그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한없는 고마움을 담아 7천만 겨레 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만복을 누릴 통일의 날을 어서 빨리 앞당겨 올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나는 그날의 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며 살고 있다.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저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형님을 다시 만날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고 있다.

김모씨가 체험한 것이 이북의 혈육을 만난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느낌이었다고 하겠죠. 아무튼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돼서 혈육의 정을 나누자고 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겠죠.

남북대학생 식목일기념 공동 식수 행사

부경총련, 함경북도학생위원회 잣나무 식수

식목일인 오늘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부경총련 출범식을 치른 경남대학교정에 뿌리 내렸다.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이 함경북도 학생위원회에 제안해 공동식수 행사를 갖기로 했다는데. 부경총련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지난 달 29일 함경북도 학생위원회에서 잣나무를 심었으면 한다는 요청과 함께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현수 부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10시경 공동식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부경총련 학생들 앞에서 함경북도 학생위원회에서 보내 온 답신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부경총련에서 보내 온 공문을 반갑게 받았고 청년학생들이 뜻과 힘을 모으자는 함경북도학생위원회의 답신을 사뭇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남북 청년학생들의 의지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공동식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백남주(동아대 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의장은 ≪통일이 되면 함경북도 학생들과 함께 오늘 심은 나무를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의 감격을 미리 전달했다.



2001년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만난 남북의 청년학생들

모든 참가학생들이 일어나≪통일의 꽃을 피워요≫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통일의 나무 공동식수가 진행되었다. 부경총련 중앙위원들이 대표로 나무를 심었고 참가학생들은 통일 잣나무에 기를 불어넣는다며 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족대단결가를 부르면서 모든 행사를 마쳤지만 학생들은 오늘 심은 잣나무 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

≪남북 청년학생의 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공동식수 기념비에 새겨진 글처럼 통일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거름 삼아 통일의 잣나무가 심겨졌다. 앞으로 잣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겠지만 학생들의 통일의지가 식지 않을 때만이 이 나무의 성장이 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대기련 부울경남지부 공동기자단
2002/04/05 유뉴스

북한학과 학생들 첫 단체방북

≪02학번부터 96학번 복학생까지 모두 가요. 낮엔 만물상에 올라가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금강산 관광 세미나도 할거예요≫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 등 42명이 10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2박3일간 ≪금강산 답사 봄소풍≫ 을 떠났다.

이전에도 북한학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금강산이나 평양에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북한학과 학생들의 단체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에 여행을 간 학생들은 대부분 북한학과 학생들이지만 이 대학 사회대 다른 학과 학생들과 덕성여대 학생도 있고 북한학과 조교도 동행했다.

지난해 가을에도 금강산 수학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1인당 여행 경비가 40만원 이 넘어 포기했던 동국대 북한학과는 최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 발표 덕에 소망을 이루게 됐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 경비로 1인당 19만9천200원만 내고 나머지는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과 3학년 박선주(21.여)씨는 ≪19만9천200원 외에도 버스비랑 티셔츠 비용 등으로 1인당 2만5천원씩 걷었다≫며 ≪여행 경비중 60% 가량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과장인 박순성(朴淳成) 교수는 ≪학문도 가슴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전공 학생들은 북한을 직접 보고 오는게 가장 좋다≫며 ≪앞으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학생들을 금강산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충원 기자
2002/04/10 연합뉴스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7일

이북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부시정권의 핵공격계획이 드러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미국이 이북에 핵타격을 한다면 그것은 이북만이 아닌 한반도전체에 대한 핵타격으로 된다는 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거죠. 땅덩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북과 남의 구별이 따로 없게 돼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되는 건 우리 민족이고 불모의 땅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온 겨레는 미국이 이 땅에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새로운 핵공격계획인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를 작성발표한 이후 미국의 핵전쟁위협은 시시각각으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정권의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을 포함해서 7개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시행정부는 이미 전에 새로운 국방정책이라는데서 유럽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무력을 아시아지역에 배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핵전쟁수행의 중점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추진시켜 왔습니다. 최근 부시정권의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는 북에 대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를 비롯해서 미국방장관, 미국무장관 등 미호전집단이 북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둘 수밖에 없다느니 북이 반테러전쟁 2단계의 표적으로 될 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 것은 미국의 핵공격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사용, 북에 대한 핵공격이 하나의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본질에 있어서 북침전쟁을 목적한 핵시험전쟁의 서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같은 핵시험전쟁을 거듭 벌이고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에서 작성된 핵공격계획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핵전장되게 할 것이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핵전쟁의 참화속에 말려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희생물로 될 것이고 온 강토가 황폐화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결국 우리 민족, 민중에게 지난 6.25전쟁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 경우 민족공멸의 위험천만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민중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며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청년학생이건, 지식인이건, 종교인이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핵전쟁의 가공할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반전반핵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의 피해로부터 우리 민족, 민중을 수호하고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적인 소행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은 미국이 일으키려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를 예의주시하며 걸음마다 **, **하기 위한 반전반핵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시정권의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가 철두철미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핵전쟁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범죄적 내막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이를 단죄규탄하기 위한 반미반핵시위와 집회 등을 줄기차게 벌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단체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이 반전반미반핵투쟁에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을 이룩하며 하나로 굳게 뭉친 단결된 힘으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투쟁승리의 요인은 민중의 단결된 힘에 있습니다.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반전반핵투쟁에서도 반미의 기치아래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나간다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 인해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은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반전반핵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 미군기지이전 신설 반대 투쟁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9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군부대이전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9일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현재 강원도 춘천에 주둔중인 미군기지는 오는 2007년까지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일대 20여만평기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청년회 등 이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미군기지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기지이전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의정부시내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범시민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30만평의 미군기지신설을 반대해 규탄집회 등 여러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투쟁은 미군기지의 이전이나 신설이 아니라 즉시 모두 철폐하고 반환할데 관한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더없이 의롭고 정당한 투쟁인 것입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된 불모의 땅 414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대신 오산, 평택, 의정부, 포항 등에 있는 노른자위 땅 54만평을 미군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못쓰게 만든 땅을 넘겨받는 대신 기름진 땅을 넘겨주는데도 있지만 우리 민중이 그처럼 요구하는 서울 용산기지와 화성리, 매향리사격장, 그리고 파주에 있는 쿠니사격장 우선 철폐 및 반환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 협의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위해 무려 11억달러의 국민혈세를 미군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동두천과 의정부를 비롯해 휴전선 근처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평택, 군산, 원주, 서울 구로 등 전지역에 미군의 병영과 탄약창,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을 비롯한 미군기지가 무려 200여개나 있고 그 면적은 1억평이나 됩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재난을 덮씌우는 전쟁의 온상지, 살육과 공포의 발원지, 한국민의 존엄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사각지대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질문화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마약, 밀수행위 등 각종 사회악의 온상지로 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우리 국민이 당하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들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해 그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못이겨 미군당국은 이번에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불모의 땅으로 화해버린 일부 기지들을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노른자위 땅을 넘겨받기로 한 이른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날로 높아지는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기 위한 기만적 조처로써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반적인 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미군은 이 땅에 영원히 틀고 앉아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계속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을 묶고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반대해 그처럼 완강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내외 민중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철수하고 기지들을 즉시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군사집단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대매국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주≫국방부

국방부의 F-X사업 1단계 평가결과에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동신 국방장관과 최동진 획득실장에 대한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일 오후 3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자통협,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주최로 F-15K 기종선정 철회, F-X사업반대, 미군기지 완전반환을 위한 국민대회가 사회단체회원,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잔뜩 흐린 날씨에 진행된 이날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F-X사업 전면재검토, LPP(연합토지관리계획)재협상,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 막대한 군사무기들을 쏟아부었지만, 빈 라덴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며 ≪부시정권은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미국의 군수산업체를 살찌우고 낡은 무기들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수희 공동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F-15K를 사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전제하고 ≪우리는 F-15K 구입 반대가 아니라 F-X사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김종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은 LPP협정체결을 규탄하는 정치연설을 통해 ≪29일 단 5분만에 체결된 LPP협정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꼈다≫며 ≪무상공여로 쓰던 땅이 쓸모가 없으면 그냥 반납하면 될 것이지 이전비용 1조 5천억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LPP협정의 내용을 비판했다.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LPP협정이 체결되기 10일전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우자동차가 미GM사에 1조 5천억에 팔렸는데 이번에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으로 1조 5천억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LPP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고 주한미군기지가 완전 반환될 때까지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또,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통국장은 F-X사업 규탄발언에서 ≪뒤에 보이는 국방부 건물에 박혀있는 ≪국방부≫라는 글자 앞에는 ≪자주≫라는 글자가 있는데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가 F-X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주≫라는 글자를 가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국방부의 대미의존을 강력하게 비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홍순석 한청 부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김동신 국방장관 자진사퇴와 최동진 획득실장의 구속처벌 ▲F-X사업 전면재검토 ▲LPP협정 폐기와 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요구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상징행사로 ≪F-X사업 전면 재검토≫, ≪국방장관 퇴진≫ 등의 구호가 쓰여진 종이비행기를 국방부 청사 안으로 날려보냈다.

이렇듯 F-X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 3일 2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F-X공동행동≫은 다음 주에도 집회와 청와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F-X사업 2단계 평가를 앞두고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4/06 통일뉴스

F-X공동행동, 범국민대회 가져



4월 10일 오전 10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국방부가 ≪F-X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10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F-X 2단계 평가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현재 F-X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F-X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던 조 대령과 김모 대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1차 평가가 이루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이미 F-15K로 답을 내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F-X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시했다.



불타고 있는 ≪국민의 혈세≫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방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F-X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F-X사업 전면 재검토와 연기≫라 주장하고 ≪국방부가 힘들다면 국회 국방위에서의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발전소 매각, F-15K 도입,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이제 국민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무기 도입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화군축운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규탄연설 후 참가자들은 종이로 만든 F-15K를 찢어 국민의 혈세를 상징하는 밑이 뚫린 돈상자에 집어넣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사회를 보고있던 김종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은 ≪F-15K 구입으로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미 군사적 종속과 남북간 군비증강,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F-X사업 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정리집회 장소인 용산미군기지 1번게이트까지 ≪F-X외압의혹 진상규명≫, ≪F-X 전면재검토≫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인 후 범국민대회를 마쳤다.

한편, 자통협,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연합을 비롯한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은 국방부의 F-X사업 2단계 평가에 대비해 4월 한달 동안 전국 곳곳과 온라인(www.cleanfx.net)상에서 ≪F-X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렬 기자
2002/04/10 통일뉴스

전국 7개도시 ≪미국제품 불매≫ 시위

광주, 대구서는 대학생들도 동참

≪어떻게 안티 오노를 외치면서 미국제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보고 난 뒤 맥도날드 햄버거는 목에 걸려 잘 안 넘어가요. 좋아했는데 이젠 잘 안 먹어요?≫

≪네티즌들의 오프집회는 3차, 4차 계속됩니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더라도 말이죠≫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시비를 지켜본 한국네티즌들의 분노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는 3.1절에 첫 오프 집회를 가진 대한민국네티즌연합(http://www.coreanetizen.net)은 4.5식목일에도 어김없이 행동전을 치뤘다.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불매운동에 대한 홍보전을 비롯 서명운동, 거리행진 그리고 식목일인 만큼 ≪무궁화꽃씨≫를 나눠주면서 ≪오늘만큼은 애국심을 심는 날≫로 만들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경기인천서울연합 행사는 2시부터 약 100여명의 네티즌들이 종묘공원에 모여 발대식을 시작으로 거리홍보, 서명전, 무궁화 꽃씨 나눠주기를 진행한 후 4시경에 인근 탑골공원까지 행진하고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는 10대 청소년층이 대다수, 그리고 20대 대학생과 30대 직장인이 소수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시비로 땅에 떨어진 한국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애국운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네티즌연합 운영자인 최승호씨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프집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홍보전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보배(연수여고 재학 중)양은 인터넷을 통해 이 모임을 알게됐다며 ≪김동성선수 때문에 동참하게 됐어요. 쇼트트렉 경기 후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라며 네티즌들의 행동이 냄비근성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1시부터 6시 사이에 마무리됐으며 미국제품불매운동에 대한 홍보·서명전, 무궁화 꽃씨 나눠주기로 이어졌다. 전국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지만 광주지역에서 맥도날드 측과 사소한 마찰이 야기됐으나 곧 진정됐다. 부산지역에서는 3.1절 1차 집회에 참석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동생을 데리고 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네티즌연합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남총련) 학생 일부와 연대행사를 가졌으며, 대구는 네티즌연합 회원자격으로 10여명의 경북대생들이 동참했다.

백영순 기자
2002/04/05 유뉴스



부정부패 왕초 이회창 매장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일~5일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의 주가조작공모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회창의 장남 정연은 지난 2000년 8월 재벌2세들과 공모하여 W사라는 빈껍데기회사를 유망벤처기업으로 포장한뒤 모제약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모제약이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원격의료업체인 W사를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 창업투자전문회사인 T사를 내세워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하고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모제약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매입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하여 2000년 8월초 당시 4천몇백원에 불과하던 모제약의 주가가 한달여만에 4만원으로 열배정도 폭등하자 정연과 재벌2세들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남겼다. 그리고 T사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4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검은 돈을 챙겼다.

참으로 정연이 자행한 주가조작공모행위는 그 수법과 교활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긴 부정비리만 일삼아온 썩은 개족의 품에서 구린내나는 2세가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정연의 애비 이회창은 검은 돈으로 제 배를 불려온 도둑왕초이다.

이회창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저지른 부정비리행위는 제쳐놓고라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계산을 해도 부정부패왕초의 감투를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기부자금횡령사건 과 97년 대선자금불법횡령사건 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회창은 지난 96년 4.11총선시 선대위위원장을 하면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이중 500억원을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쓰면서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챙겼다. 그리고 다음해인 97년 대선 때에는 불법적으로 모은 대선자금 236억7000만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0억여원을 집어삼키고 검찰수사를 흐지부지해 버리도록 강요하였다.

돈에 환장이 된 이회창은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 아들 정연이를 주가조작사기행위에로 부추기는 한편 재벌2세들에게 제놈이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아래 90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빨아내어 제놈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검은돈으로 이회창은 친일역적인 제애비의 생가를 2억원이나 들여 복원했는가 하면 월세 1000만원씩이나 하는 105평짜리 호화주택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 정연이를 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희세의 친미친일사대매국노인 동시에 부정부패의 원흉, 썩은 개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힘으로 부정비리의 칼날을 횡포하게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이 땅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은 문민독재자인 김영삼과 그 아들 현철이가 저지른 한보부정비리사건 이 어떻게 이 땅의 경제를 거덜내고 아이엠에프의 경제신탁통치를 몰아왔는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일 썩은 개족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제2의 아이엠에프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부정비리왕초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청년학생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이회창이 저지른 친미친일매국행위들을 집중적으로 폭로선전하는 것과 함께 역도가 저지른 온갖 부정비리행위들을 낱낱이 발가내어 반이회창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도록 하는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가와 공단가, 농어촌과 성당 등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이 더 거세게 타번지게 해야 한다.

이제 이회창역적이 발붙이고 편안히 숨쉬고 있을 자리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과감한 투쟁으로 이 땅의 반이회창열풍을 몰아올 것이며 민족의 역적, 부정부패의 왕초 이회창을 기어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이다.

이회창 대통령후보 경선출마 선언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6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각계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해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냈습니다.

이회창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정권을 악랄하게 비방하던 끝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큰 일이나 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는 그가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친일파의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친일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기간 민족일보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징형을 언도한 극악한 살인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가 반민족반통일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4.8합의서가 발표될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시비질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에도 앞장에 서서 비방하면서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도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이북을 비난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반대하는 이유의 다른 하나는 그가 친미친일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특등주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이 미국에 갔을 때 민족적 자존심도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미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아부아첨하면서 호전광부시의 악의 축 망발을 지지하는 등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서슴지않고 자행했습니다. 이회창이 일본에 갔을 때에도 부시의 악의 축 망발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고였다느니 북이 신뢰성이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북을 비난하고 일본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친미친일사대매국노가 적지 않았지만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너절하고 누추하게 행동한 자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민족, 반통일, 친미친일사대매국노가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에 나섰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민중에 대한 우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이 요원해진다며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후보여론조사에서 이회창이 민주당후보보다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대세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포기하고 즉시 정계에서 퇴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과 자신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석씨, 이회창 겨냥 노래 발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FUCKING U.S.A로 화제를 모았던 윤민석씨가 이번에는 특정 정치인 공박에 나섰다.

새 노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채 그의 신변에 대한 노랫말 일색이다. 호화빌라논란, 손녀의 미국출산, 아버지의 친일행위, 아들의 병역면제, 지역감정악용 등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특정정치인을 들먹인 것.

송앤라이프(http://www.songnlife.com)에 등록된 감상평에는 ≪이회창≫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기사 내용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kino0070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에 따르면 ≪이 노래가 퍼지면 모씨는 고개도 못 들겠네. 이제 그는 물러 날 때가 됐지≫라며 최근 정치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회창씨에 대해 평가했다.

윤민석씨는 ≪혹 있을지 모르는 명예훼손 소송을 대비해 노랫말에 사용된 가사와 관련 한겨레(21), 조선일보 인물자료, 오마이뉴스 기사 등 신문자료를 인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링크시켜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란 노래는 작년 9월, 10월 대학가에 화제가 되어 불려졌던 ≪이회창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이 노래는 밝혀지지 않은 한 ≪대학노래패≫에 의해 불려졌다.

백영순 기자

2002/04/08 유뉴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8일~9일

겨울을 이겨낸 소나무의 푸르름을 보며 사람들은 한총련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요. 어찌보면 한총련의 역사는 눈보라를 일구며 기승을 부리는 엄동을 물리치며 더 왕성하게 자라는 청송과 같다 하겠죠. 정의와 애국의 단심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의지, 수배 3년차를 맞는 학생운동가 한모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죠.



보고싶은 어머니

인편을 통해 문안의 편지를 올립니다.

학생회 일로 늦어질 것 같다고 어머니 선잠 결에서 조용히 이르고 문밖을 나섰던 그날, 다시는 그 문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수배자로 몰려 여기저기로 피해다니는 속에 세월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불효한 이 자식을 꿈속에서나마 안아보며 그 기다림속에 더 늙으셨을 어머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글월에 실어보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찢어발기는 듯 아프고 쓰립니다.

어머니, 지난 1월 저는 한 일간지에 실린 수배 3년차를 맞는 전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과 강정호씨의 할머니의 장례식에 관한 글을 읽고 심적 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눈을 감아도 원이 없겠다던 강씨의 할머니가 그 소원마저 무덤속에 안고 갔다는 글줄을 읽으며 저는 우리 한총련 학우들이 겪는 시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경찰당국의 수사를 피해 온 경향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수배생활의 마음속 고충은 어찌 한두가지랴만 가장 큰 고통은 부모님들이 겪는 가슴 아픈 소식에 접할 때인가 싶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동료로부터 어머니의 병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한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980년 광주봉기때 계엄군에 의해 남편을 잃고 유복자로 태어난 저 하나를 키우며 한생 고생속에 살아오신 엄마,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강직하신 어머니가 아닙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2살 갓 되던 저의 조막돌같은 손을 이끌고 무등산기슭에 올라 광주천을 바라보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사람이 철들었는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걱정 할줄 아는 마음에 있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귓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또 떠오르는 시절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나돌아다니다 밤이 이슥해서 집안에 들어설 때면 왜그런지 철부지마음에도 어머니앞에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죠. 혹 문소리가 어머니가 깨어나시지 않을까 망설이면서 말입니다.

그럴때면 어머니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마치 큰 일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기듯 저를 맞아주셨죠. 그러한 어머니가 투병중에 계신다는 소식을 동료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뢰이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하게 분출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설치는 광주천 푸른물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 학생운동권, 특히 저같이 수배생활을 하거나 감옥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싸우는 학우들을 두고 찔러도 피한방울 안나올만큼 독하고 메마른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개중에는 운동병에 미쳐 부모와의 초보적인 윤리조차 지킬줄 모른다며 저희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1998년 한총련대표로 8.15통일행사에 참석했던 황선씨가 판문점분리선을 넘으며 ≪한총련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읊은 시구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라고 떠나간 할머니를 이름으로만 목놓아 부르며 절규하고 중병으로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편지로만 위로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륜이라 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다하는 효성이고 세상을 울리는 것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어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형제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단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 부모만 섬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앞에 효도하고 나라앞에 충성하는 길을 오직 투쟁에 있음을 너무도 잘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한번 선택한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념으로 한총련 6기 의장이었던 손준혁씨는 독립운동에 아들을 내보낸 것 같다며 아들의 장한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던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옥중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 ***, 이동진 등 백수십명의 수배학생들이 한총련합법화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높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기운에 질겁한 민족반역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총련을 말살함으로써 전반적 대중운동을 무력화시킬 속셈밑에 탄압의 예봉을 학생운동핵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탄압공세는 물리적 폭압에 회유와 협박, 분열공작, 그리고 인간의 고상한 윤리마저 악용한 사상유례없이 악랄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그 탄압한파속에 경인총련의장이었던 김건수씨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일흔이 넘은 어머니와 신부앞에서 경찰에 의해 팔목이 뒤틀려 끌려갔습니다. 경찰당국은 그렇게 건수씨를 연행하고는 그대로 함께 활동한 사람 단 한명이라도 실명을 거론하면 불구속으로 내보내주어 결혼에 차질이 없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인 최덕진씨의 할머니들앞에서는 또 어떤 추태를 벌였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연행하러온 그들에게 다른 한총련 대의원들을 자수하게 하면 아들을 놓아주겠다고 기만했습니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는 동생의 문병을 온 여학생을 병원에서 머리카락을 쥐여당기며 끌어가고 귀맛좋은 소리로 일부 학생들을 경찰에 자진출석케하고는 긴급체포한 것 등 민족반역세력이 한총련학우들을 상대로 자행한 짐승도 낯을 붉힐 탄압만행은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미국에는 아부하고 한 동족이 사는 저 북에 대해서는 주적이라 고창하며 애국적인 운동권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에 열렬해 청춘일진대 우리 어찌 이런 부정의세력, 사대매국세력을 앞에 두고 투쟁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2년전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 선언에 받들려 화해와 단합의 꽃물결이 설레이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며 7천만 겨레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한 한반도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과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6.15공동선언발표이전보다 더 첨예한 행성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밖출입은 비록 못하시지만 방송을 통해 들어 어머니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개발국이니 악의 축이니 하는 갖은 악담을 늘어놓던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최근에는 북을 핵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핵전쟁의 서막으로 한미합작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여놓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덮씌우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고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병중환자인 이회창이 청와대입주권을 노리고 부시의 뒤에 줄서기를 하면서 타들어가는 북침도화선에 기름을 부어주는 망동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 역사의 오물들을 쓰레기통에 처넣고 6월선언에 받들려 펼쳐졌던 그 감동의 화폭들을 영원한 화폭으로 펼쳐놓아야 하겠기에, 민중이 심장으로 염원해 마지 않는 자주, 민주, 통일의 새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와야겠기에 우리는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향이 가장 정의롭고 애국적인 것이기에 각계 민중 모두가 한총련 그 이름 불러 구국의 강철대오, 불패의 애국대오, 백만의 자주대오라며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로 굳게 결집된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있고 성심성의로 후원하는 민중이라는 대해가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고 이족단체입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이 곧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이라며 한총련학부모협의회를 무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한총련출범식에도 참석하여 내 자식이 교도소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온게 아니라 자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떳떳한 마음을 안고 왔다며 학우들을 고무한 정명기 이전 의장님의 아버지 정연오한총련학부모협의회 회장님과 같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건 그의 정신세계에 매수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정신 똑같이 안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 저의 신랑입니다.≫라며 신랑없는 반쪽 결혼식을 치루는 것으로써 경찰당국의 탄압에 항거했다는 김건수씨의 애인 홍은주씨의 이야기 언제나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줍니다.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인 진재영씨를 8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지금도 옥중고초를 겪고 있는 그를 기다려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한그루 작은 나무라고 하는 ***씨와 같은 이들이 있어 우리 마음 든든합니다.

어머니도 그러한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철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시던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생전의 아버지를 만나보곤 한다며 눈물지으시던 그 모습으로 어머니는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요. 언제나 제가 곁에 있다고 여기십시요.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 때 아들도 그 격동의 현장에서 잘 싸우고 있다고 믿어주십시요.

어머니, 부디 앓지 마시고 귀한 몸 정히 보존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아들의 효성도 담겨져 있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큰 열매를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의 시 ≪너희는 모른다≫를 이 편지속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언제인가 제가 이 시를 읊어드리자 어머니는 열혈 청년들의 투쟁의지가 그대로 안겨오는 좋은 시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때처럼 아들이 어머니의 심장곁에서 시를 읊어드린다고 여기시고 잘 읽어주십시요.

이적단체 국회입성, 합법화 첫걸음 떼다

한총련 합법화 위한 공청회, 전국평화대행진 제안



≪합법 한총련≫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학생운동단체가 강령개정을 시작으로 전국평화대행진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 한총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8일(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총련 강령개정에 대한 공청회≫는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학생운동내부 상황, 합법화의 구체적인 지점 등에 대한 사회각계단체 인사들의 평가와 격려, 조언이 잇달았다.

이날 공청회는 안기부 2차장을 지냈던 손장래(현 대책위 고문) 선생이 참석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약속을,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선생의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당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적규정으로 묶여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전 국민들과 학생들의 힘으로 한총련 강령을 개정하려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윤경회(한총련 대변인)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강령규약개정위원회 토론과정을 거친 후 1차 개정안이 나왔다≫며 ≪애초 한총련 강령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대중적 단어를 구사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강령 첫 부분에 성격을 명시하는 ≪국제연대≫, ≪학원자주≫, ≪통일≫등의 단어를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변화에 맞게 여성, 인권, 환경 등 신설 강령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나온 1차 개정안은 본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느낌이 지배적.

특히 통일부분은 지난해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고 6.15공동선언이행으로 교체한 후 현재는 7.4남북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범 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총련에서 제시한 강령규정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6명의 패널은 지지와 더불어 한총련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가하기도했다.

한총련 학생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이적규정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는 김승교 변호사는 ≪강령과 활동의 문제이기보다는 공안당국의 낡고 편협한 시각이 한총련을 이적규정하고 있는 원인≫이라며 이제는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답이 있어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학생운동에 애정을 지닌 사람조차로 한총련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동안 합법화움직임 배경을 한총련 내부에서 설명한다면 합법화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료집 발간시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하되, 북측과의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대법원의 지적이 있는 만큼 표현에 있어 신중하기를 바랬다. 끝으로 학문부분을 학문사상으로 강조해주길 지적했다.

한총련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정명수(전대협동우회 회장)씨는 ≪전대협 강령규정이 한총련 것보다 세련되지 못했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며 ≪결국은 학생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여부다. 운동대중화를 실현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적단체인 한총련에게 ≪국회≫를 빌려주는데 기여한 송영길 민주당의원은 ≪한총련이 시대에 맞게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강령과 규약을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한다≫며 현정권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한총련 합법화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제안을 가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던 정지환(말지, 오마이뉴스) 기자는 합법화를 진행하는 이 싸움을 노무현의 정치행보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심리적연좌제에 맞서 승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노무현에게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사모의 힘과 언론과의 전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 후 한총련 역시나 일반학생들의 자발적 지지와 더불어 이싸움에 조선일보를 끌어들여 한총련 합법화를 전사회적 여론으로 형성할 줄 아는 기획력을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환경 등 강령을 신설한 내용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이후 한총련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대표는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며 ≪이번에 여성문제를 강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처럼 다른 주제 역시나 광범위하게 포함해 자주민주통일과 여성, 환경 인권등의 문제를 잘 버무려라≫고 고언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김형주 한총련 임시의장은 ≪이제껏 한총련은 이적규정의 굴레에 몸부림쳐왔다≫며 ≪한총련의 합법화 움직임이 작고 미약한 실천으로 보일지라도 많은 고충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민과 학우들과 더불어 이적규정을 꼭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9) 오전10시께 한총련 김재연의장 후보측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총련합법화 촉구 전국평화대행진≫을위한 기자회견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졌다.

김후보 측은 ≪매년 전체 학생들로부터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도보로 전국행진을 하면서 전 국민과 대학생들을 만나 합법화의 여론형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총련 소속 단체가 아닌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산하 서울대학생기행연합(의장 김진실 고려대 통계학)이 동석해 평화대행진을 함께 떠날 의사를 밝혔다.

김재연후보 측에서 제안하는 전국평화대행진은 오늘 12일부터 3일간 영남대에서 진행되는 10기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논의돼 최종 확정된다.

백영순 기자
2002/04/09 유뉴스

이른바 《생활안정운운》은 국민기만이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4일

지금 정치권은 다가오는 월드컵경기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지방 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상생이 아닌 상살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간의 꼬집기와 흠집내기, 헐뜯기로 극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모순과 갈등의 도가니속에서 끓고 있다.

서로의 엇갈린 주장을 내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난동까지 부리는 통에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국회가 공전과 파행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판국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속에서 정치인들은 경제회생이니 생활안정이니 하며 마치 제가 권좌에 오르면 민생을 구제하기라도 할 것처럼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하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등지고 민생을 외면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예외없이 국민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고들 한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참정치는 실종되고 세비만 올려 받아먹고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자.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실업자대군이 거리를 떠돌며 특히 10대, 20대 청소년실업자들, 대학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시내를 방황하고 있다. 더욱이 10대, 20대 실업자들속에서 산생된 2인조, 3인조강도단이 대낮에 은행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거액의 돈을 강탈하고 길가던 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약탈하며 살해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니 사회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빛은행 중랑지점에 3인조강도단이 침입해 흉기로 은행직원을 위협하여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난 것이라든가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에서 3인조강도단이 농협직원을 위협해 현금 2억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자뿐 아니라 노숙자문제 역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들이 지하철역과 역대합실 등 곳곳에서 욱실거려도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극히 줄여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거리에서만도 각종 질병에 걸려 숨지는 노숙자가 한해 평균 400여명에 달하고 있으니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아도 과시 짐작할 수 있다.

노숙자들은 삼간초가에서나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더라도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다. 자기 몸 하나 담을데 없는 노숙자들의 가긍한 처지에 비해 볼 때 월세 1000만원짜리 호화주택 2채를 임대해 호의호식하며 흥청거리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사치한 생활,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너무나 판이하고 상반되는 생활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은 말끝마다 민생구제니 생활안정이니 하며 마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것처럼 너스레를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의 사탕발림의 국민기만의 요설이다.

또한 노점상 상인들의 경우를 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에도 벅차다는 노점상들에게 있어서 생활안정이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노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이고 운명이라고 할만큼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강남, 종로 등지의 노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철거, 무차별적인 단속을 강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민생구제가 있고 생활안정이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해괴망측한 모습이며 이 땅의 정치인들에 의해 구상되고 시행되는 작태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활고를 비관한 주민들의 자살사건과 살해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빚독촉에 못이겨 자살하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살하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등 자살과 살인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그 사례를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 양상과 유형도 천차만별이니 국제사회계가 한국을 가리켜 자살왕국이라고 지탄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오늘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은 불안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안정이란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경국제민이라는 말이 있다. 말하자면 나라가 힘을 넣어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민생문제, 생활안정은 현대정치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문제,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대 행사, 양대 선거에만 급급하고 차기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략에만 고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민생구제니 생활안정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생구제, 생활안정 이것은 기만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정치인들의 선정용 광고일 뿐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정치인들은 민중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민생문제를 가지고 민중을 희롱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유일한 미국의 식민지사회이고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이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허황한 수작이고 잠꼬대같은 소리이다. 이같은 식민지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생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그 기본역량은 근로민중의 단합된 힘에 있다. 근로민중은 사회와 역사발전의 주체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런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서 주체는 다름아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 근로민중이다.

이 땅의 근로민중은 사이비정치인들의 생활안정광고에 속지 말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땅의 근로민중은 민생을 위한 투쟁이 곧 인간의 기본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직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이 투쟁에 헌신해야 할줄로 믿는다.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온 국민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들떠 있지만 길거리에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해야하는 노점상들은 거리에서마저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노점상이 침체된 경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근본적인 측면은 외면한 채, 월드컵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면 의례 환경미화나 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거나 예고하곤 한다. 이번에도 종로2가에서 6가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해 노점상 규모를 1/3 수준으로 줄이고 서울시 12개 지역에 대한 노점상 ≪절대금지≫와 ≪상대금지≫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4천3백여 개의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대책반 6백여 명을 구성하여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0년 1만2346건(11억44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3%나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9월말 현재 9791건(10억6195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노점상들은 물리적인 단속과 벌과금의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점상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점상 정책의 기조가 도로 관리를 위한 행정적 측면과 공권력 확립이라는 법적인 치안 문제로 한정되어 노점상 정책에 관련된 구조적인 원인과 구체적 실태 파악 조차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노점정비안도 기존의 노점상 절대금지 및 상대금지 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층 일반의 실업정책을 노점정책으로 둔갑시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노점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비켜가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으로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일 뿐 실질적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생활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소와 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을 임의로 선정한, 노점상의 생계와 조건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대책은 전업희망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도, 생업 및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이미 제시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생업대책과 연관지어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노점상상담센타≫로 이름만 바꾸어 제시하고 있고 직업훈련 역시 40대 이상이 노점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취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보장에 도움이 안되고 기금조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기에 노점상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적어지고 있다. 또 생업자금융자와 관련하여 융자금을 보증인·담보 등의 조건으로 대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다. 결국 노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현재와 같이 고용문제가 악화되는 이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노점상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노점상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점상은 공식부문이 담당하기 곤란한 업종을 소화하고 서민들 가까이에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편리한 유통망의 하나이다.

서울시의 행정과 노점상은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점상을 단속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 함께 ≪노점상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하여 거리와 지역적 조건에 맞는 규격화와 자율질서를 통해 도로의 공공성은 물론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양측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용역반을 고용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시민의 세금을 영세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서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점상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으로 존재해왔다. 이미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노점상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미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영세노점상의 생계보호 방안 등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노점상들도 거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점상 자율질서대≫ 를 발족하여 거리의 환경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경기에 떳떳한 구성원으로 즐겁게 경기가 치러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점상이 시 행정가나 단속반의 축구공이 되어선 안 된다.

최인기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2002/04/09 인터넷 한겨레

발전노조 현장복귀, 그러나 민영화 반대는 계속된다



지난 3일(수) 정오 명동성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호동위원장이 ≪발전노동자, 현장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부간에 이루어진 ≪합의안≫에 따라 발전노조원들이 6일(토)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정당성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파업은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훗날을 기약하며 파업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업무복귀 총투표를 위해 동국대에 모였던 발전노동자들은 복귀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온갖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따위 합의를 하다니≫ 한 노조원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발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과 정부간의 합의는 2일(화) 오후 예정됐던 민주노총 연대총파업 직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총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발전노조, 여타 파업참여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작 합의안을 보고 허탈해했다.

합의안에는, 민영화 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노동자 징계문제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측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일방적으로 항복한 것 아니냐≫는 노조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김철운 기획선전실장은 ≪민영화문제를 이번 파업과 관련해 협상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것≫이며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차질없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사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회사측은 이번 합의를 민주노총이 민영화를 수용하고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지도부가 3일(수) 오후 합의와 총파업 철회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발전노조파업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합의 주체였던 지도부 전원사퇴와 합의안 폐기를 결정했다. 허영구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마치 노조에서 민영화를 수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매각 저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는 복귀 이후 파업 찬반 총투표를 통해 파업지속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회사측의 압력과 합의안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 속에서 파업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회사, 언론의 공세앞에 우리편은 아무도 없었지만 탄압 속에서 어렵게 지켜온 피맺힌 외침이 헛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이호동 위원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이제 발전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민영화에 대해 절대로 재론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회사측의 태도로 인해 파업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서울대 김민호 기자
2002/04/10 대학신문

민주노동당 관악을 지구당 민영화 반대 지역선전전

4월 3일 관악을 지구당은 지역 5개 거점에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발전소 매각 반대≫ 정치연설회와 시민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하루 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철회되고 발전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발전소 매각 저지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노총 투쟁의 철회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당과 민주진보진영의 끈질긴 투쟁으로 만들어 온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의 광범위한 여론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천11동 원당시장, 관악프라자 앞, 봉천5동 현대시장, 신림6동, 동부아파트 앞을 돌면서 가두 연설을 하고 발전소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은 발전소를 비롯한 기간산업의 사유화, 해외매각의 본질을 폭로하고 범국민적 민영화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발전소 매각의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전 매각 반대의 여론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관악프라자 앞에서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셨고, 우리 당 동지들의 연설을 주위에서 지켜보며 경청하는 가운데, 가판대로 다가와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팔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발전소를 팔 수 있나≫하며 놀라움을 표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배포한 유인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어야겠다≫하시며 수십부를 챙겨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신장식 동지가 ≪다른 것이 애국이 아니라 발전소 매각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애국이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지키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나서서 서명해야 된다≫하며 서명에 동참하였고, 동부아파트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서명하려는 분들을 말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진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의 여론을 이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는 공무원 노조 관악공대위의 여러 동지들과 함께 관악구청 앞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지역단체 동지들과 함께 ≪공무원노조 인정!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관악구청을 둘러싸고 힘찬 피켓팅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낮시간에 진행된 일정이어서 많은 당원들이 결합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당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정공지가 늦어져서 서울대 학생동지들이나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는 당원들이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원들과 함께 일정을 논의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완전쟁취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역에서 힘차게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2002/04/05
민주노동당 관악을 지구당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열혈 청년들의 뜨거운 의지의 발현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일～2일

4월이 왔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화창한 4월, 계절중에도 으뜸인 봄계절. 그 봄계절의 아름다움이 이 4월에 다 담겨있는듯 해요. 그러나 이 4월이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새겨지는 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4월이기 때문이죠. 우리 4월과 더불어 흐르는 하루하루를 숭엄한 마음으로 맞고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주석님의 한평생을 심장속에 더욱 뜨겁게 새겨야 할거예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이남의 열혈 청년들이 축하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2월의 봄명절에 맞아 대학가마다 뜨겁게 굽이치던 위인칭송의 열기, 흐르는 날과 더불어 더더욱 우리 청년학생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속에 이남 열혈 청년들의 명의로 된 축하문이 장군님께 드려진 사실은 백만학도 모두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청년학생들 모두는 그 축하문에서 다진 결의대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경륜을 앞장에서 받들어 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열혈 청년들의 뜨거운 의지의 발현 .

청년학생 여러분!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그분께 우리 이남의 열혈 청년들이 축하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남 열혈 청년들의 명의로 된 그 축하문에는 우리 청년학생들만이 아니라 이남 민중 모두의 심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기에 그날부터 여러 날이 지나갔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은 축하문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폐부에 새기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맹세 지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고 선봉장이 될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그분께 삼가 드린 우리 이남 열혈 청년들의 축하문, 그것은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우리 청년학생들의 감격과 낭만, 기쁨과 환호의 분출입니다.

축하문에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공세책동을 단호히 격파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분을 백두의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희세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또한 축하문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을 만민이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받들며 따르고 있는 사실에 관해 언급하고 그분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단합과 통일의 길로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린 이남 열혈 청년들의 축하문은 그분의 통일위업을 받드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가려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심장의 맹세입니다.

축하문에서 이남의 열혈 청년들은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앞장에 서서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한몸이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어 달려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리움을 안고 불타는 심장으로 위대한 장군님 뵈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간절한 심정을 전하면서 성스러운 자주통일투쟁을 계속 *** **으로 가속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과 6.15공동선언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정세는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중의 앞길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누구보다도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력부대, 선봉대인 우리 청년학생들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투쟁해 나갈 걸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축하문에서 결의다진대로 한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순결한 인간, 순결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안고 가야 할 신념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21세기 조국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있는 한 조국통일대업은 기필코 실현된다는 필승의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안고 살아야 할 의지는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받드는 길에서 선봉장으로 살고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분쇄하는데서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조국통일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맹세는 말로써 결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꽃펴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경향 각지를 휩쓰는 반미항전과 반이회창투쟁을 비롯한 민족분열주의세력을 청산하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열혈 청춘들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반전, 반이회창투쟁의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되고 각계의 민중과 더불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달려나가는 투쟁의 기수, 대오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대중의 사상정서와 감정에 걸맞는 옳은 투쟁방법과 전술을 창출, 구사하고 대오의 단합을 더욱 확고히 하여 학생운동조직을 민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투쟁조직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결의를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실천해 갈 때 6.15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되어 온 민족이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할 통일의 날은 오고야 말겁니다.

누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가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7일~8일

…
선군정치여! 너는 이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이남의 우리도 함께 동족으로 지켜주었다

선군정치가 아니였으면 핵병기가 광란하는 이 땅에
미국이 살판치는 이남땅에 공장은 돌아가고 학교는 문을 열수 있으랴
저 여의도의 국회인들 있고 제주도의 귤밭인들 있으랴
겨레고 강토고 결단난 땅에 민족의 삶이 있으랴

기적이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세계최대의 열점지대 가장 첨예한 대결의 땅에
애당초 평화가 있다는 그 자체가
…
내 감히 단언하노라 이남 민중이 누리는 평화
그것은 이북의 덕분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덕분

민중시인 오철승씨의 장시 ≪겨레사랑 선군정치여≫의 한 귀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미운동가 김철수씨의 글 ≪누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가≫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양군의 대규모합동군사훈련이 일단 막을 내렸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이번의 전쟁연습은 핵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이고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이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해온 부시집단은 한반도에 대규모 침략무력을 공공연히 집결시키고 이북을 불의에 침공할 흉계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끝내 북침을 단행하지 못했다.

4만3000여명의 미군, 65만여명의 국군, 도합 70만의 대병력과 최신예 첨단장비를 총투입하고서도 이북으로는 감히 총탄 한발 날려보내지 못했다.

북측지역에로의 가상적인 이동전개, 상륙과 중심타격작전을 발광적으로 벌이면서도 이북의 영해와 영공, 영토는 0.001미리미터도 침범할 수 없었다. 선군정치로 존엄 떨치는 이북은 단호한 대응으로 한미군의 북침도발음모를 결렬시켰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북의 이 폭탄선언은 빈말이 아니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로 이북은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국으로 위세 떨치고 있다.

이북군이 보유한 최강의 무기는 사상정신력이다. 이북군은 모두가 자폭용사, 총폭탄용사이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을 제1사명, 제1자랑으로 여기는 이북군을 당할 군은 이 행성에 없다. 미국은 바로 이를 두려워하며 그 위력앞에 전율하고 있다.



이북군의 무장장비는 세계 정상급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우리의 타격을 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북. 강력한 공격력은 물론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이북군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조국수호의 총검을 굳건히 거머쥐고 있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기에 미국이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놓고서도 어쩌지 못했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아래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는 이북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21세기의 가장 치열한 전쟁판으로 화하고 말았을 것이다. 전쟁이 터졌다면 한반도는 발칸반도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황량한 폐허로 되고 말았을 것이다. 서울은 물론 이 땅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국민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잿가루만 날리는 땅에 무슨 정치가 있고 정치인이 있겠는가. 황량한 벌판으로 화한 마당에 무슨 경제요 GNP요 하는 넋두리가 울려 나오겠는가. 이북이 지켜주는 평화의 덕을 우리 이남민이 톡톡히 보고 있다. 정녕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의 안녕, 우리 국민의 평화가 있다.

새 역사연구회 정진철씨가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아니라 이북군이라고 한 것은 얼마나 옳은 말인가. 그런데도 이 땅의 반통일집단과 군부호전계층은 전쟁의 온상이며 악의 화근인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수조원씩이나 탕진하며 미국제병기를 끌어들이고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북침전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이북을 악의에 차서 비방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로 천벌을 받을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를 받는 이북에 미래도 운명도 맡겨야 한다. 그 길에 민족의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다. 7천만 겨레의 희망찬 미래도 빛나는 존엄도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건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덕분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서부지역민중연대주최 진보정당강연회 《새로운만남》



역사가 항상 바른길을 걷는 갈피에는 선각자들의 땀과 피눈물나는 역정의 생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역사의 궤적에 깊이 패여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깊은 발자국만 남아 자취를 증언할 뿐입니다.

지금 길을 열고있는 사람들, 바로 시대에 충실한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봅시다.

1. 들어가며

민주당 경선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면서 피어오르는 꽃망울처럼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도 대권 후보선출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번 양대선거는 투쟁하는 민중들과 친미사대매국세력과의 심각한 정치적 대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양대선거의 핵심적 화두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입니다.

이 화두의 관문은 역시나 오랜기간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기반으로 민중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치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민족 민중진영의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과 전술의 깊은 고민속에서 승리의 진로를 밝혀내고, 정당운동의 이해를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도에서 기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2. 정치학교의 의의

① 서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치교양학교이다.
② 양대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자리이다.
③ 서울 서부지역의 제 단체의 선거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대중적인 정치교양학교이다.
④ 서울 서부지역의 제 단체의 선거대응에 관한 결의들을 모아내고,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으로의 결집을 결의하는 결의의 장이다.

3. 목표

① 최대한 많이 대중적으로 참석한다.
② 미리 준비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들어보는 자리로 만든다.
③ 최대한 지역에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을 다한다.
④ 지역에 입후보하는 민주노동당 지자제 후보에 대한 소개와 승리의 결의를 최대한 모아낸다.

4. 행사 주체

주최 : 서울 서부지역 민중연대 준비위원회
주관 : 민중연대 정치학교 준비단, 민주노동당 서대문갑,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5. 행사 개요

1) 일시 : 2002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7:00- 20:00
2) 장소 :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3) 강의내용 - 1강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당위성
- 2강 : 2002년 양대선거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자세
4) 강사 : 추후 공지

6. 진행 순서

- 다함께 노래
- 서부지역 민중연대 대표자 인사
- 참여단체소개
- 5시 30분~6시 40분 : 1강 (70분 소요=강의 50분+질의응답20분)
- 6시 50분~7시 10분 : 서부지역 민주노동당 소개 (각 지구당별로 인사)
- 7시 10분~8시 20분 : 2강 (〃)
- 8시 30분~9시 : 서부지역 민주노동당 후보자 결의발언 및 힘다지기

서울 서부지역 민중연대 준비위원회

우리의 4월 15일

조창재

세월의 날과 달은 멈춤없이
이 땅위에 흘러가건만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 않는
우리의 4월 15일

꽃이 피고 눈비 내리는 이 땅의 사계절
그 날과 날들은 지나가도
1912년 4월 15일이여
이 날은 정녕 추억의 먼 기슭에 흘러간
세월의 하루가 아니었구나

새 세기의 첫 태양절
오늘에 부르는 내 노래
그 봄빛을 안고 있어
이처럼 뜨겁게 울리는 것이고
거리를 지나는 아이들의 눈동자도
그 봄빛 어려 밝게 빛나는 것 아니던가

이날을 안고
이 땅의 천만 꽃들이 망울을 터친다
이날을 속삭이며
넓어진 청춘대지에 봄싹들이 움튼다
이날을 받들어
전사들의 선군선창이 번쩍이거니

내 이날을 생각할 때면
백두의 밀림에 새겨진 자욱자욱이
인민 위해 바치신 그 한평생이 한눈에 안겨와
가슴 뭉클 젖어 드는 수령님 모습

아- 1912년 4월 15일이여
그 속에 우리의 봄이 있고 여름이 있다
이날 속에 우리의 가을과 서리꽃 피는 눈계절이 있다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진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날로 흐르고
또 이날에서 시작된다

지나간 세기의 하루가 아니었다
흘러간 세월의 하루가 아니었다
주체 1년 그날은
지나온 날과 달을 다 거느리고
앞에 올 날과 달을 다 거느리고
무궁한 주체의 세월을 끝없이 열고 있나니

이 땅의 만복이 시작된 날이여
수령님 우리에게 태양으로 오신 날이여
붉은 기 강성대국의 앞길에
영원한 빛발을 뿌려주는
아- 우리의 4월 15일

주체91 4월 1일

전국연합소속의 모단체 회원인 이성민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박두한 가운데 지난달 파업을 철회했던 철도와 가스노조도 이번 연대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전산업민영화저지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서울 명동 등 도심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소속 조합원 150여명이 3월 30일 오후 여수에서 연행된 종업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여수경찰서앞에서 31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교조소속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790명이 노조원들의 투쟁을 지지해 지난 3월 26일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미국 전투기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주최로 지난달 27일 미국대사관옆에서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호전광부시가 악의 축 발언을 또다시 되풀이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를 발표하신 20돌기념 중앙보고회가 3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규탄해 3월 30일과 31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91 4월 2일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양회 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민족의 축일로 기념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내 모처에서 가진 회합에서는 회장 이명수씨가 4월 15일은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가로 이름난 위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14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생애 마지막시기까지 한평생을 오직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위인은 없었다. 진정 **김일성**주석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이씨는 계속해서 태양을 따르는 위성들이 변함없이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주석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에 기념강연회를 비롯해서 주체사상토론회,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발표회,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노래보급, 사진전개최, 6.25전쟁시기 주석님께서 다녀가신 수안보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방부의 사대매국적이며 굴욕적인 무기구매행위를 규탄해 3월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3월 29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한나라당에 전달했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의 미군기지 30만평 신설이 확정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생연대는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등록금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집회를 가지고 정부는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철도청이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57명을 고소고발해 놓은 것과 관련해 전국 5개 지방본부노조원 1500여명은 3월 29일 오후 2시쯤부터 정부대전청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소고발철회와 구속노동자석방, 민영화방침철회 등을 주장하며 3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이북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구실을 붙여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계속하려고 책동하고 있어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립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희기념관 이 이미 지난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3월 20일 쿠바도서협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이 3월 23일 *** ***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글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 3월 25일자가 침략정책 폭로 분쇄하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주체91 4월 3일

한총련은 지난 3월 28일 북침전쟁무기 F-15K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을 악의 뿌리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 미화 5880만달러와 한화 5368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협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노무현 대선후보 경선자는 21세기 지도자의 법과 인권에 대한 의식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가 3월 31일과 4월 1일 실시한 올해 대선관련 여론조사결과 민주당 노무현 고문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의 맞대결에서 46.2%대 28.9%로 17.3%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헬기소음으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의 중금속오염도가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지난 3월 23일 이집트 알 아밀 알 유트리신문사에서 기념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태양절기념 캄보디아 준비위원회가 3월 26일 프놈 펜에서 결성됐습니다.

캄보디아 왕국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의 지시에 따라 왕궁담당 콩 쌈올부총리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일 우크라이나 법률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주체91 4월 4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4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를 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전소민영화움직임을 보일 경우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가 사실상 정해진뒤데 대해 반대여론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반미기운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주간잡지 시사저널 과 공동으로 전지역에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총련의 반미투쟁방식에 동감하는 지지율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여론조사결과 미국에 대한 인식전환은 일반 시민들속에서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미국의 충견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특정후보를 위해 경선을 무산시키는 등 경선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당내에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급진세력이 좌파적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 는 이회창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후보자질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전농2동에 있는 4층짜리 여관건물에서 불이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남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 사이의 회담이 3일 진행됐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을 3월 20일 덴마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1권에서 우리 가정 을 에티오피아신문 에브리코 3월 24일자가 게재했습니다.

태양절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돌에 즈음해 3월 12일과 18일 민주 콩고 진정한 루붐바주의투사민족운동과 민주 콩고 조선친선협회, 민주 콩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민주청년동맹에서 기념집회와 토론회,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쿠바와 체코의 신문방송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침략성을 폭로했습니다.

주체91 4월 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월 4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그 일행인 국가정보원 김보현차장, 통일부 조명균국장, 청와대 서훈국장을 접견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연예인 최영미씨가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고 한다. 해마다 열리는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은 피부와 언어가 다른 세계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위인상을 노래와 춤으로 칭송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 이 환희로운 축제에 우리 이남 연예인들도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가수 김연자씨가 제19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서 공연한 장면, 그녀가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뵙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녹화물을 보여준다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정일영수님께서 김연자씨를 만나주시는 장면은 보면 볼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영수님은 참으로 소탈하시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나도 영수님을 모시고 평양무대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 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를 목청껏 불러봤으면 원이 없겠다. 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는 2일 전투기도입과 관련한 군당국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부산지역본부와 부경총련, 사회당 부산시지부 등 8개 단체들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이 10%선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 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의 사이에 각계층 성인남녀 133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이 대선에 출마하면 지지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표를 찍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69.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표를 찍겠다는 사람은 16.3%에 불과했고 나머지 14.3%정도는 선거때 가서 결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이회창이 집권하면 남북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 망언을 추종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극악한 역적이라는 것, 민주화와 반미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사형까지의 극형을 선고했던 그가 집권하면 무서운 법관독재가 실시될 것이라는 점들을 들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이회창일족의 친일행적과 함께 두 아들의 병역기피문제, 97대선자금횡령과 호화주택무단사용과 같은 부정비리문제들을 들면서 그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한나라당내에서는 이회창을 가지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최병렬, 이부영의원 등 여러 명이 후보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일본에 있는 한국가수 김연자일행이 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4일 우크라이나 법률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규탄해 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3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이란 신문 테헤란 타임스 12일자가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이 열리게 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주체91 4월 6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비전향장기수 오형식씨에게 은정어린 생일 일흔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임동원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습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은 지난달 29일 공안당국의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통협, 민주노총, 통일연대를 비롯한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에서 외압의혹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9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는 주석님의 저작이야말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기치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주석님의 이 저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리성이 더욱 깊이 새겨져 탄복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의 창립,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그리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석님의 이 민족대단결사상은 분열된 우리 민족의 현실태와 분단민족의 설움을 안고 사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써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이다. 이것은 숭고한 민족관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통일강령이다. 정말 주석님의 이 저작을 보면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주석님의 한생의 노고가 안겨와 머리가 숙여지고 민족대단결의 길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이 우심하지만 주석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강령이 있어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다.
한양대 김모학생은 주석님의 이 저작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삶과 투쟁의 좌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을 위해 정치, 군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부터 개인의 사적재산인정과 보호문제 그리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대단결의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진정 주석님의 이 저작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으로 일관된 민족대단결의 대백과전서로써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 우리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헌장이다. 주석님의 이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드는 길에 통일이 있고 민족의 융성번영이 있다. 나는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드는 길에 혼신을 다바치겠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주최로 제주4.3항쟁추모제 및 결의집회가 3일 홍익대학교 정문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제20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가수 김연자 일행을 위해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3일 기습적으로 지도부구성을 마치고 공식출범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 5일자에 의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지난 1일 새벽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에 있는 조은간또신용조합본점에 총격을 가하는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3월 20일 체코슬라바키아 공산당의 주최로 프라하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혁명편 3권에 대한 토론회가 3월 30일 루마니아 근로자협회에서 진행됐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4월 7일

최근 한국해맞이비디오 에서는 비디오영화 평양음악열풍 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뜨거운 흠모자료들과 함께 한별을 지켜가리라 , 조국의 품 , 동지애의 노래 등 20여개의 이북 명곡들과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노래를 이어 부르는 각계의 모습을 화면으로 묶어 편집한 것입니다.
영화는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주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한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열렬한 흠모심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디오영화 평양음악열풍 은 지금 각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의 종합연습과정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 2월 25일자가 게재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이집트 조선친선협회에서 3월 24일 조선의 행운 이라는 제목의 뷸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반테러작전을 확대하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동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단죄규탄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이 1일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제14차 아랍국가연맹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아랍평화계획을 거부하고 무력침공에 매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